

渴波濫의 대간길 1

갈파람의별

소개글

목차

1	백두대간 네번째 무룡고개~육십령(영취산, 덕운봉, 구시봉(깃대봉))	4
2	백두대간 세번째 무룡고개~중치(영취산, 백운산)	63
3	백두대간 두번째 하늘재~부봉~조령(탄향산)	105
4	백두대간 첫번째 댕재~삼화사(두타산)	197
5	백두대간의 흔적	243
6	백두대간 구간별 지도	248

3월 15일 음력2월15일 둘째 생일이기도 한날

백두대간 구간산행을 하기위해 집을 나선다

무룡고개에서 육십령까지

육십령고개 산과사람들이후 정말 오랜만에 가보는 설레임 이었고

무룡고개는 한번 갈려니 참 자주가보는 고개마루다

장안산(호남금남정맥시작)과 영취산(백두대간)을 연결하는 무룡고개 이기 때문일터.....

낮익은 무룡고개에서 산행은 시작 된다

여기서 육십령까지 약13km 산행을 할 계획

지난며칠전 내린눈으로 미끄럽긴해도 오르는길이 괜찮은것 같아 아이젠을 하지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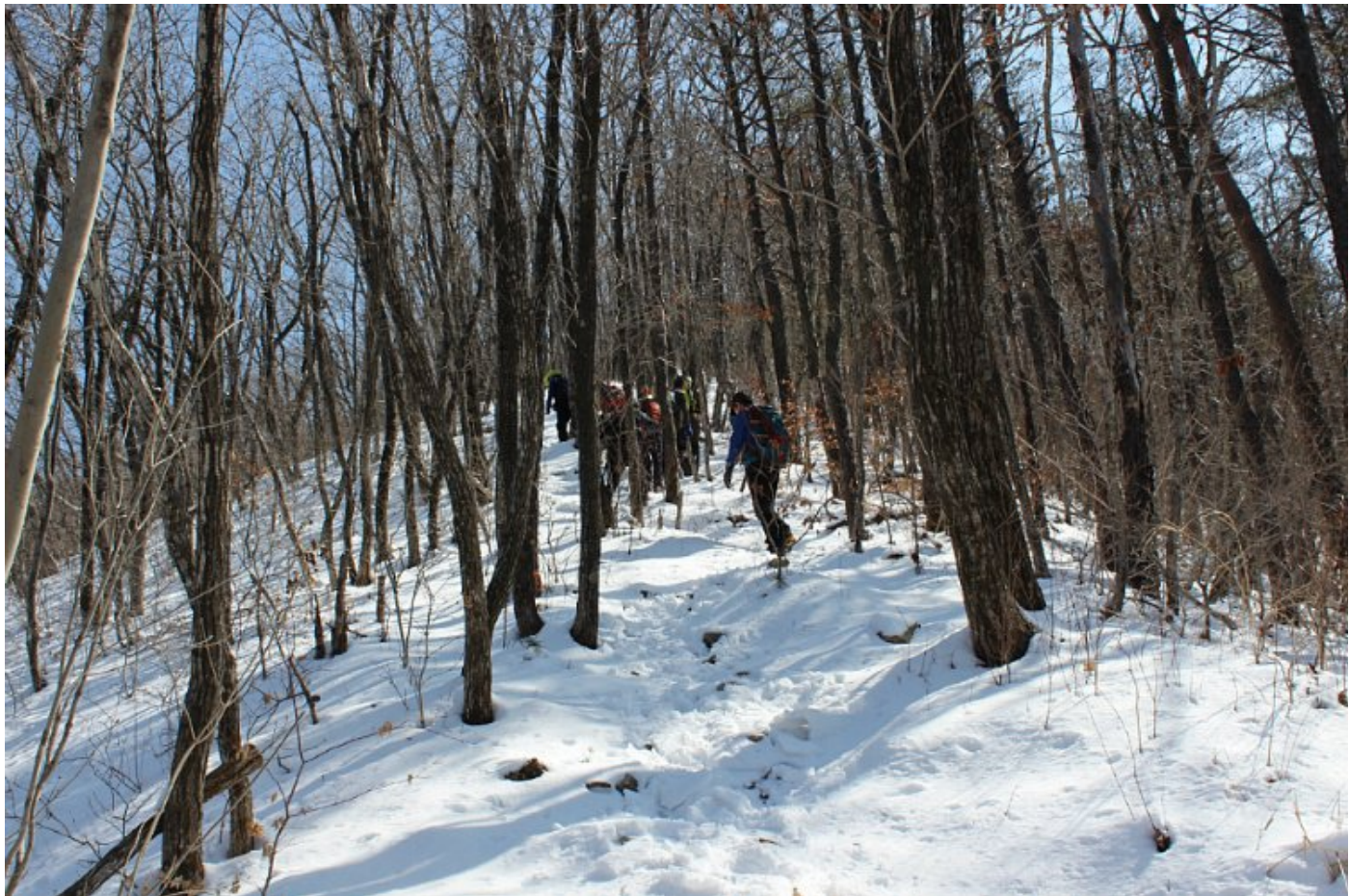
오른다











영취산 정상석 다시한번 인증샷을 하고



지난달 여기서 백운봉을 거쳐 중치로 내달렸지만 오늘은 육십령까지 가야 한다



눈길을 내려가다 몇번 미끄러져 아이젠을 착용하고 산행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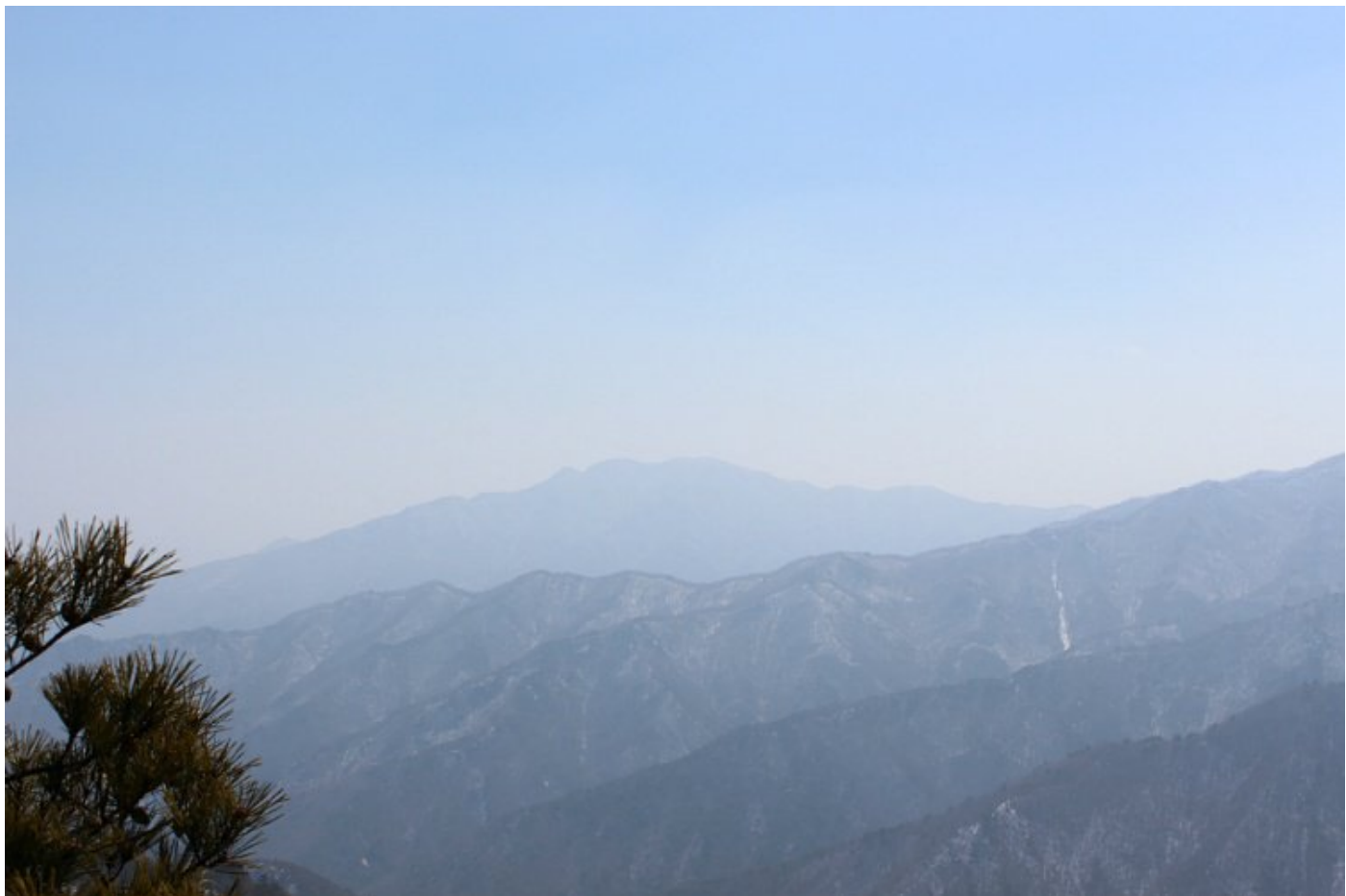
첫번째 갈림길 논개 생가지로 내려가는길이다
덕운봉 조금만 가면 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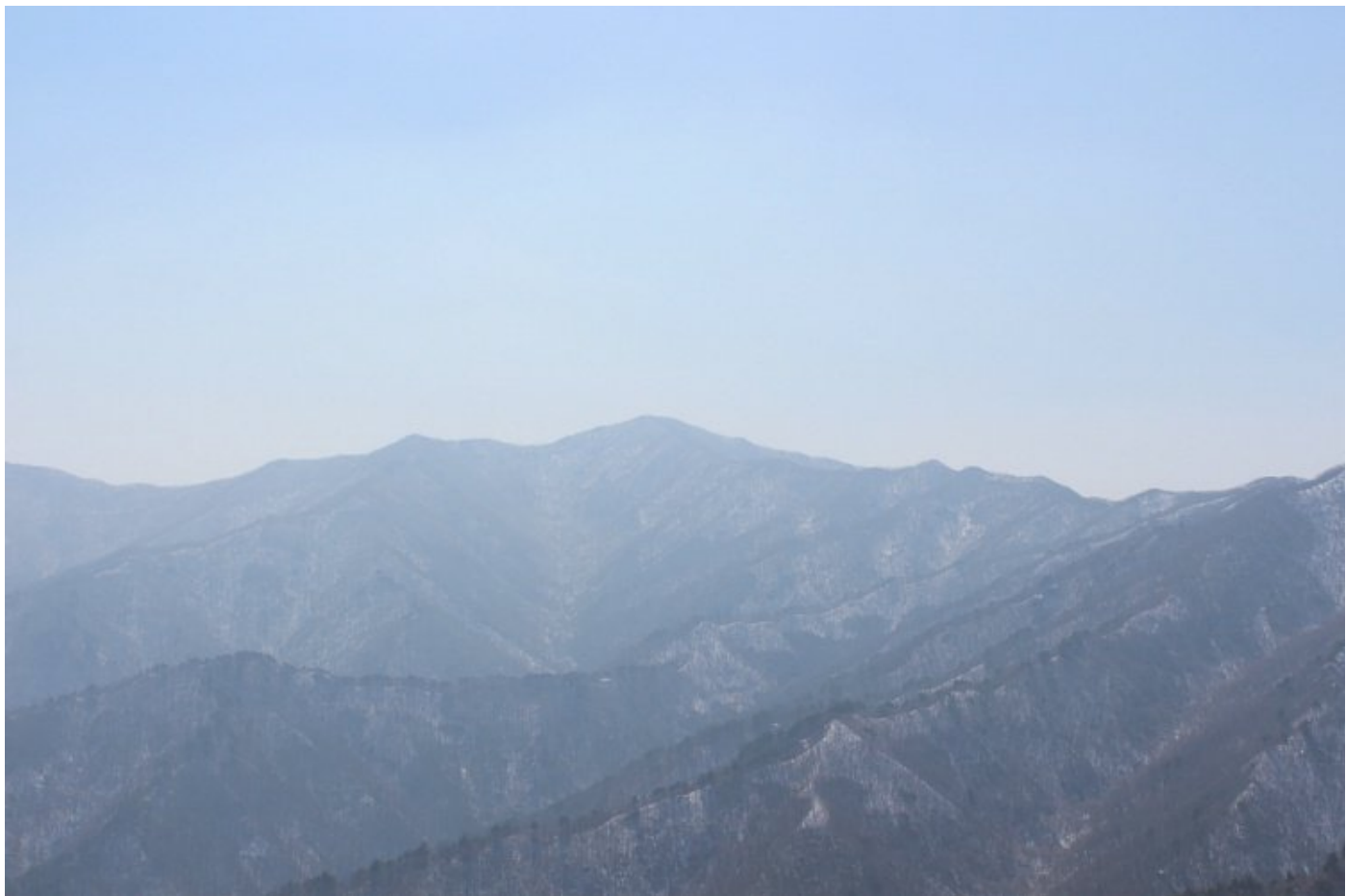
조금뒤 바위봉우리인 덕운봉(983m)에도착
이곳에서 진행방향 우측으로 내려가면 부전계곡이다



멀리 대봉산(괘관산)이 보이고



백운봉과 좌측서래봉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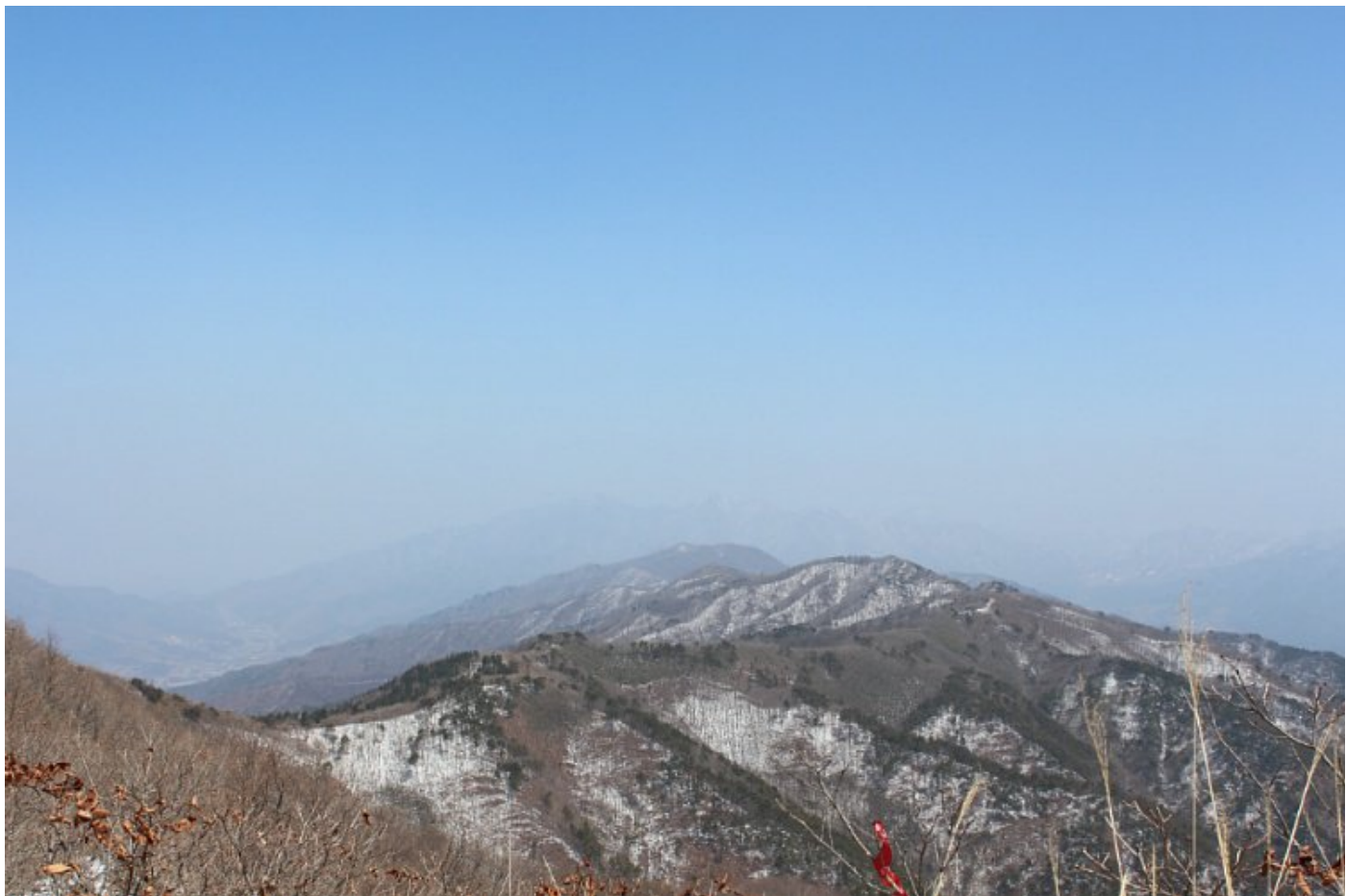




나무가지사이로 장안산도 볼수있다



가야할 백두대간길 맨뒤 희미하게 덕유산이 보인다



덕유산군은 유별스럽게 산죽이 많다

미끄러운눈길과 사람키보다 높은 산죽길이 무척 힘들게 한다











산죽길헤쳐나와 북바위 봉에 도착



북바위봉에서 내려본 장수재(저수지)와 그위 논개생가마을



북바위봉(914m) 한쪽은 아슬한 절벽이다

아래에서 보면 마치 큰 북처럼 보이는 바위의 형상이라 북바위봉 이라 하나부다



다시눈길을 한참 내려서야 한다



한참을 내려서니 멀리 구시봉이 보이기 시작 한다



겨울과 가을과 봄을 함께 느끼는 산길





민령까지 내려왔다

이제 구시봉만 넘어면 육십령이라 잠시 재충전을 하고 다시 산을 오른다



민령고개에는 철쭉으로 덮혀있다 봄철 철쭉꽃이 필때 한번쯤 더 와봤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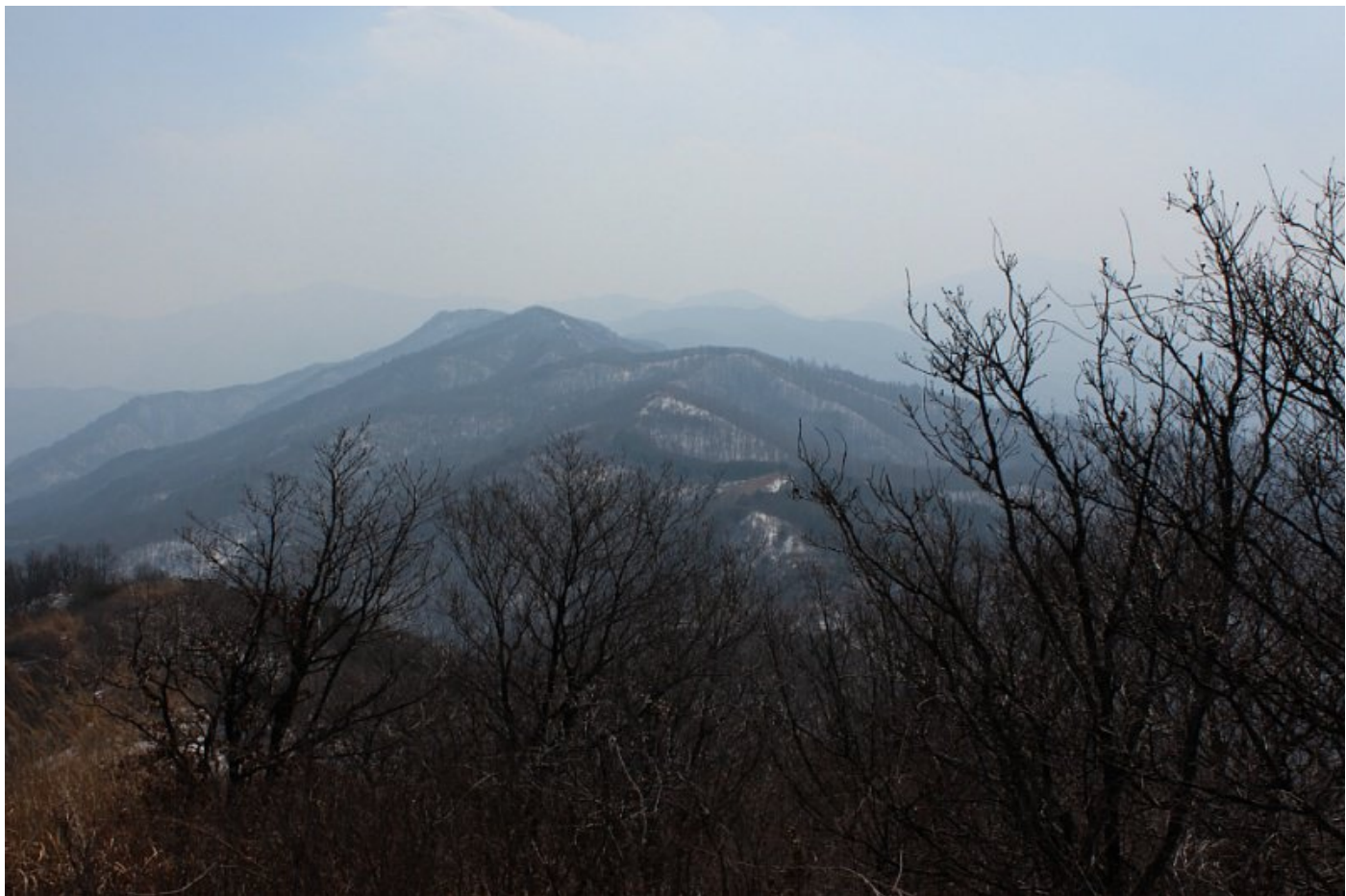
구시봉을 오르면서 뒤돌아본 대간길



구시봉 정상이 바로 눈앞에...



구시봉 정상앞에서 다시한번 지금껏걸었던 길을 되돌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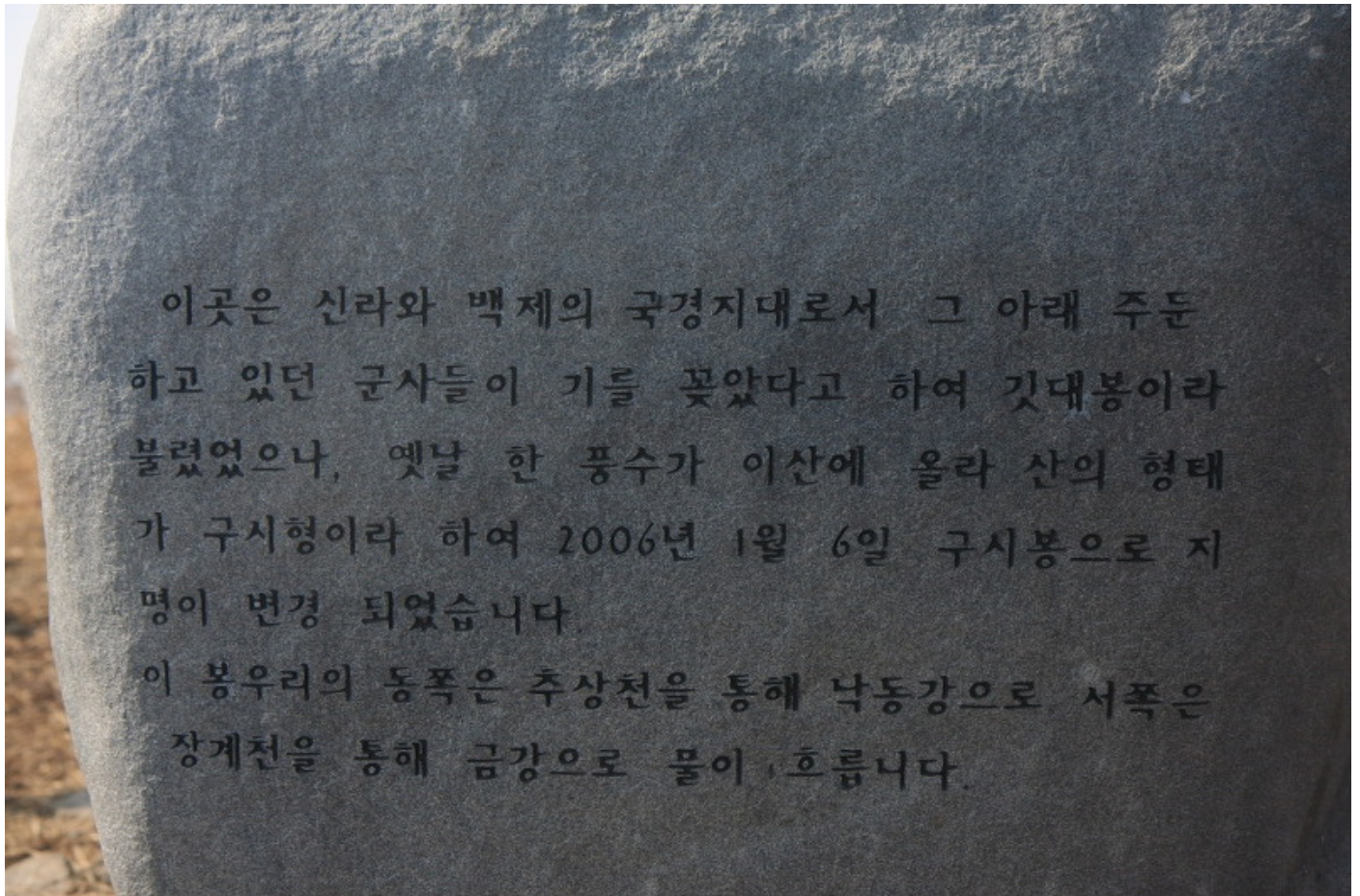
정상이 가까워 졌다



구시봉 정상에서







건너 앞 할미봉과 눈에 덮혀있는 장수덕유산, 남덕유산



남덕유에서 우측으로 수리봉과 월봉산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육십령터널 앞



구시봉에서 조금내려오면있는 구시봉샘터 아직까지 옛이름 깃대봉샘터라 되어있다
년중 물이마르지않는 백두대간길 육십령에서 복성이재까지가는중 소중한 생명수 이기도 하다
한모금 마셔보니 단맛이 난다 정말 시원하고 물맛이 좋다



깃대봉샘터

사랑하나 풀어 던진 약수물에는 바람으로 일렁이는
그대 뉘두리가 한가닥 그리움으로 솟아나고.....

우리는 한모금의 약수물에서 구원함이 산임을 인식
합니다.

우리는 한모금의 약수물에서 여유로운 벗이 산임을
인식합니다.

—깃대봉 약수터를 사랑하는 사람들—



서 부 지 방 산 립 관 리 청
무 주 국 유 립 관 리 소







다시 하산길 음달에는 눈이 얼기시작하고 양지에는 눈이 녹아 질퍽..



나뭇가지사이로 할미봉이 가까워 보인다
육십령고개에 거의 다와감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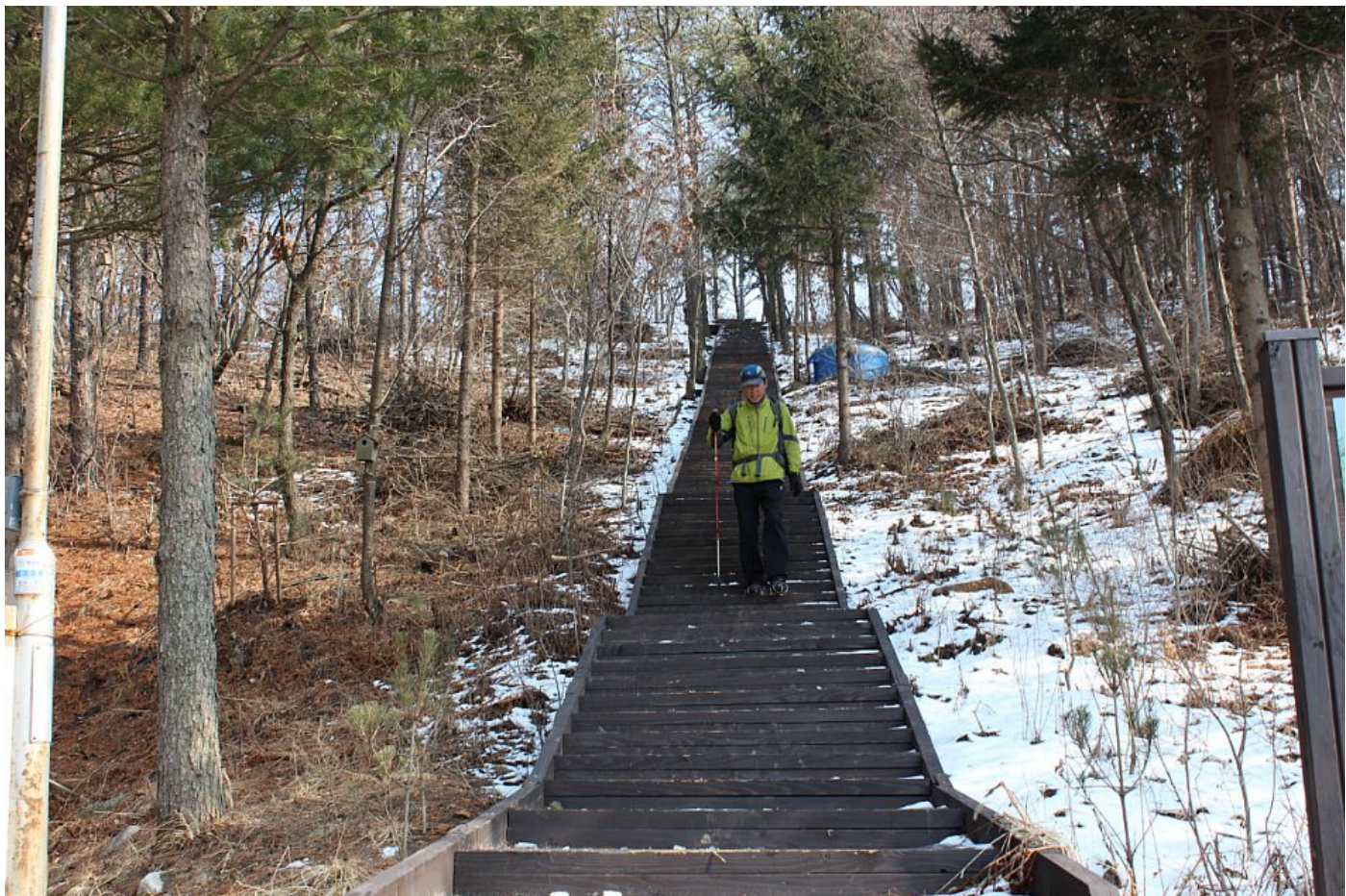
육십령 함양쪽에는 전에 없던 농장이 많이 눈에띈다







장수쪽 휴계실 있는곳으로 하산을 하고
오늘산행이 마무리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육십령휴게소 한때 장사가 잘되어 북세통을 이론적도 있지만 아래 고속도로가 생긴뒤 지금은 사람이 거의 찾지않는 휴게소







장수쪽 육십령





함양쪽육십령의 모습







이렇게 또 한번의 대간길을 걷고 다음 여기서 덕유를 찾아올때까지 날들을 또 기다려야 겠지만
 오늘 산행중 다치신님이있어 마음이 무겁다
 빠른쾌유를 바라노며..

i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두루두루에서 백두대간 시작한지 두번째날 2월15일 지난달 하늘재~조령 이어 두번째 이번에는 경남함양과 전북장수를 경계로 하는 영취산 백운산 중치까지 이어지는
비교적 짧은 코스 산행을 한다
산행시작은 무릉고개에서 시작

벌써 2년이 더 지났는가보다 여기에서 장안산(영취산에서 호남정맥의 시작)을 올랐던 기억이 난다
장안산오르는길



반대편 영취산으로 오르는 들머리



영취산 Yeongchwi Mountain

靈鷲山

백두대간
Inform



백두대간의 남부구간에 위치한 영취산은 전라북도 경성남도 함양군 서상면의 경계에 솟아 있다. 백두대간에서 금강 본기점으로 서쪽에 위치한 정안산과 이어지면서 낙동강, 금강, 섬진강의 본 정상에 오르면 북쪽으로 남덕유산이, 서쪽으로 정안산이, 남쪽으로 백운산, 충절의 해신 주능이 생기가 영취산 북쪽의 정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 사당과 묘가 영취산 기슭에 있어 문화유산 답사도 가능하다.

백두대간은 우리 민족 교유의 지리인식체계이며,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굽은 거처 지리선에 이르는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로서 총길이는 약 1,440km에 이르는 강점에 만들어진 지질구조에 기반한 산맥체계와는 달리 지포 분수 중심으로 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인간의 생활권 형성에 영향을 고려한 인간과 자연이 이루는 산지인식 체계이다.



처음부터 나무테크와 60도이상되는 경사길을 약20분쯤 오르니 영취산 정상이다

여기에서 좌우로는 백두대간길 4코스

올라온 그길이 호남정맥과 금남정맥의 시작이다 장안산을지나 지난달 다녀온 장수 팔공산을 지나간다



다음달갈 육십령 거리가오늘 정도의거리를 걸어야 되겠지



영취산에 오르니 멀리 대봉산(패관산)이 보인다



덕유에서 뻗어 있는 앞쪽능선이 거망산과 황석산 뒤쪽능선이 금원산과 기백산이다



백운산으로 가는길 제법 눈이쌓여있다









건너보이는 장안산



백운산이 가까이 보인다





백운산정상











괘관산으로 이어지는능선 아래 써래봉이 보인다





지척에 보이는괘관산 지금은 대봉산으로 불려야겠지만..



백두대간 중치로 가는길









여기이정표 문제가 있다 중재까지 약 3.7km맞는표기인데...

여기서부터는 설선을 지난다 아이젠을 벗어 버리고 가쁜걸음으로 하산을 한다







1시간여 내려왔다 아주 바쁘게 여기가 중치 좌측으로 가면 함양쪽 우측으로 내려가면 지지리계곡이다
우리는 장수 지지리계곡으로 하산을 한다



함양쪽



이어지는 대간길



지지리 계곡쪽





이길을따라 하산을한다 길이 너무 한적하다









약 1km정도 내려오니 우리를 기다리는 버스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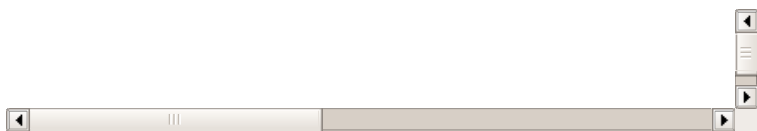


날머리 를 지나오니





맑은 계곡물이 있다 여기서 맨수마찰을 하고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며 오늘의 산행을 마무리한다
변함없이 함께 해주신 김 지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1월18일 동래지점장님과 함께 한 두루두루 산악회 백두대간 산행(두루두루 본격적으로 산행)

하늘재에서 탄향산을 지나 마역봉 까지 가서 조령으로 하산하는 코스 겨울산행이라 짧은코스 다섯시간 소요 예상을 하고 산행을 시작 한다

하늘재에서 반대로 올라가면 포함산쪽으로 월악산 군으로 들어가기에 반대편 부봉쪽으로 주흘산 군으로 들어 간다





계단을 조금 올라서서 뒤돌아보니 포암산이 보인다



백두대간 하늘재 표지석





탄향산오르는길



첫번째 봉우리 모래산





곳곳에 기암과 바위봉우리엔 금강송들이 멋있게 어울려져 있다











고사목 뒤로 주흘산이 보인다





탄항산 정상





부봉삼거리로 가는길







계단 높다 끝이 안보여...



숨가쁘게 계단을라서면 전망바위 앞에 부봉이 보이기 시작 한다
마패봉으로 가야 하나 부봉으로 가야 하나 잠시 망설임이 생긴다
양지 바른곳에서 점심을 먹고 김 지점장님과 잠시의논을 한다









조령산도 보이고





부봉삼거리 도착

부봉 두번씩이나 사정상 오르지 못한 부봉 이기에

화강암 여섯개의 봉우리를 넘기로 결정했지만 겨울 산행이라 걱정은 된다 곳곳의 낭떠러지에 눈과 얼음 그리고

밧줄을이용해야하는 바위벽 길들 ..

일단 부딪혀 보기로...







부봉 제1봉



주흘산이 뒤쪽으로 보인다





반대편 포암산과 북으로 연결되는 백두대간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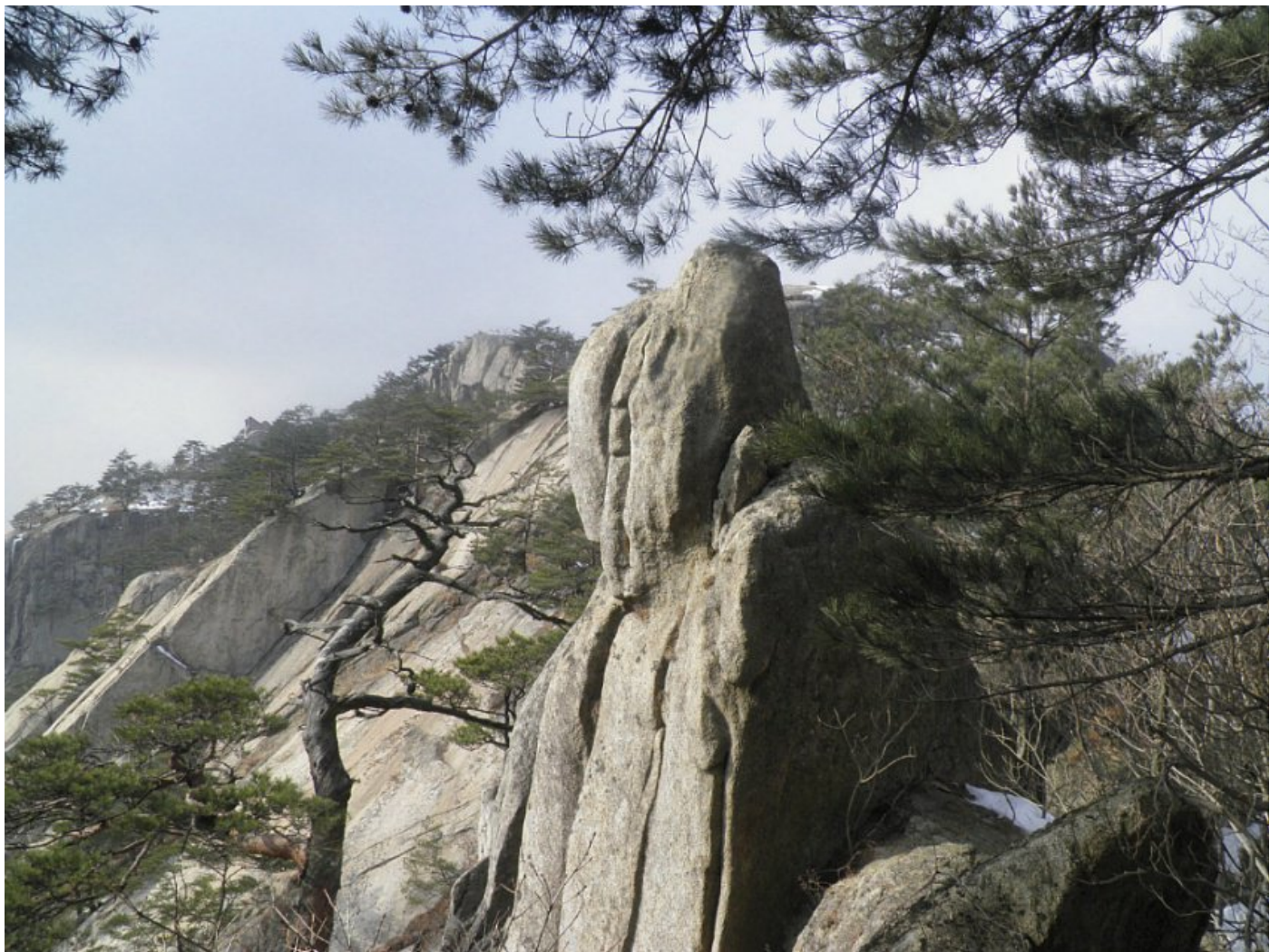
2봉을지나니 바위문이 나온다



3봉 4봉 5봉이 연속으로 보인다







3봉오르는길 아이젠을 신은채 바위릿지 산행이 엄청 힘들다





뒤돌아본 1봉과 2봉



조령산이 더 가까이 보인다



또 저 바위 덩어리를 올라야 한다













마지막 6봉만 남겨두고 ..



제2관문 주흘관으로 내려가는 갈림길



마지막6봉 직각에 가까운 철계단을 오르고



올라가며 멀리 월악영봉과 건너 박쥐봉이 보인다





나무사이로 주흘산 영봉도 보인다



조령산과 구비구비 남쪽으로 뺀 백두대간길



부봉 마지막 화강암덩어리 6봉에 올랐다
정상석뒤로 조령산과 신선암봉 이어지는



깃대봉까지



깃대봉아래 조령과 우측으로 마역봉이 눈이시리게 가까이 너무 경치가 좋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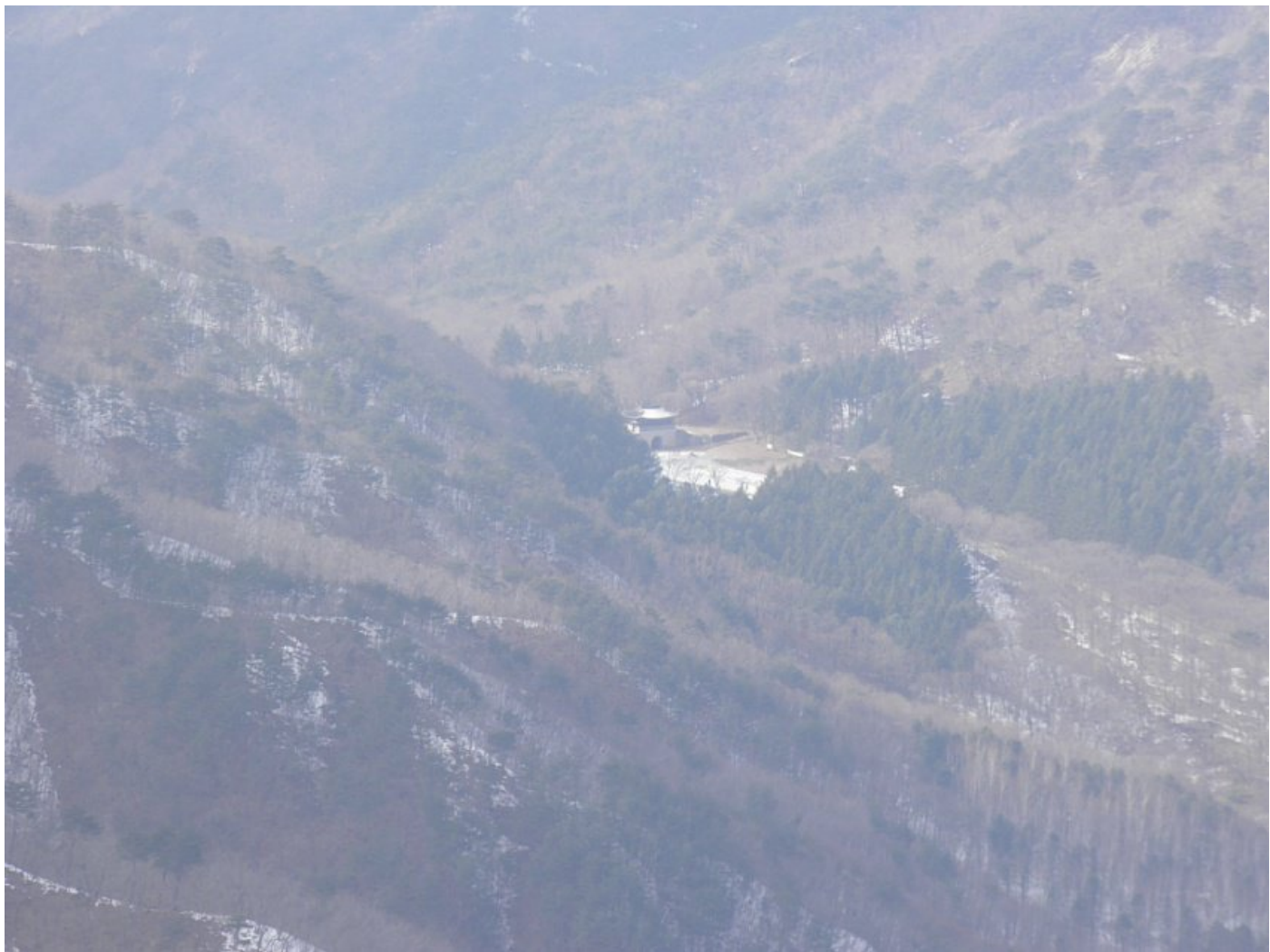


동화원으로 하산을 한다



깃대봉과 마역봉사이로 조령관문이 보인다









포암산과 만수봉



뒤돌아본 부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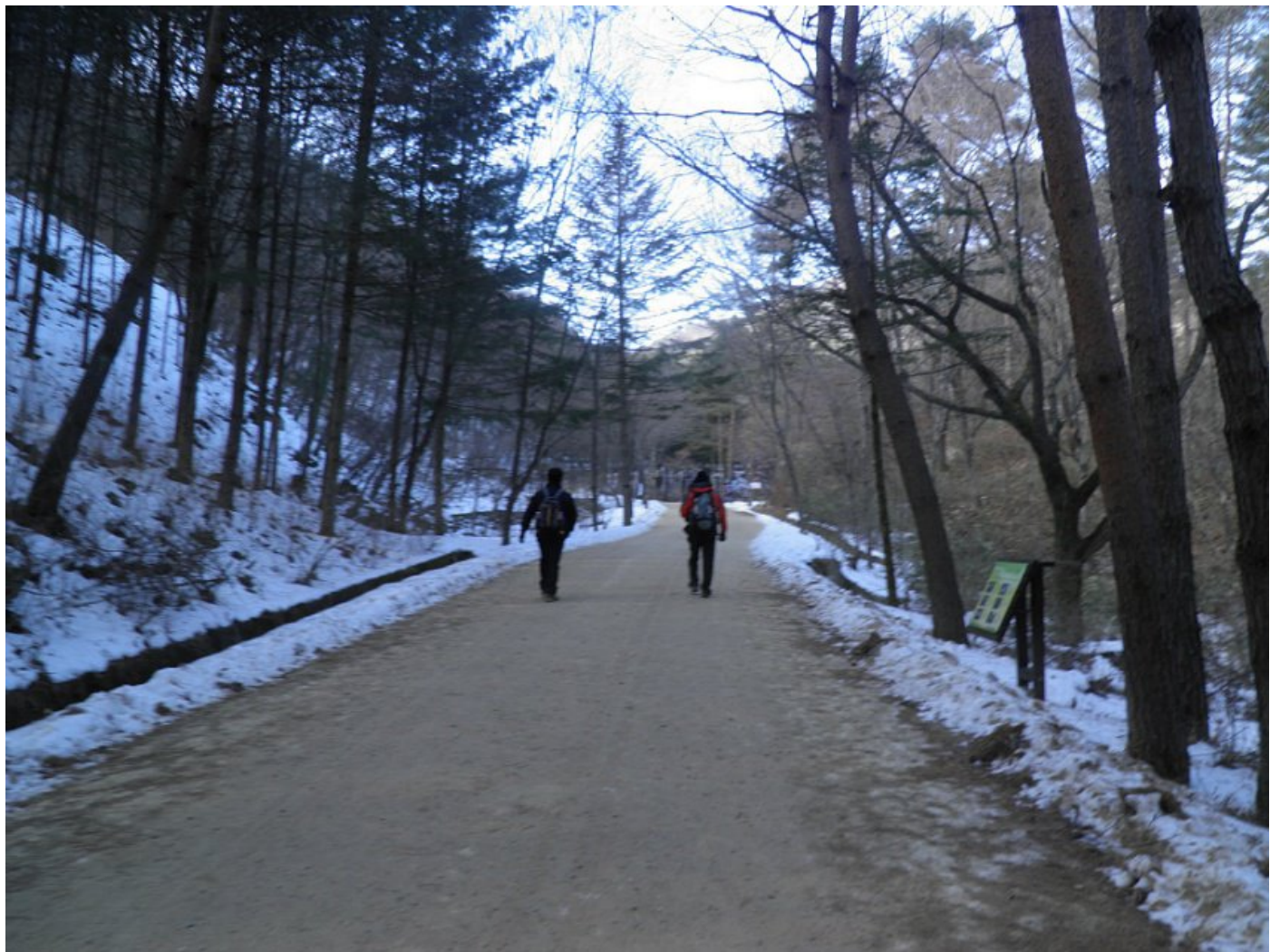
삼죽과 눈길



계곡을 건넌다 새재길까지 내려 왔다







동화원 휴게소를 지나 조령으로 올라간다









조령관 주변







부봉을 뒤돌아 보니











백두대간 조령 표시석





고사리 주차장으로 내려 가는길

이런저런 모습들을 찍어가며 산행 마무리를 한다

오늘 산행은 오랜만의 겨울찬바람을 맞으며 겨울릿지의 즐거움이 있었던것 같아...











이후 2016년 10월03일 부봉에서 마패봉구간 땀뺀하였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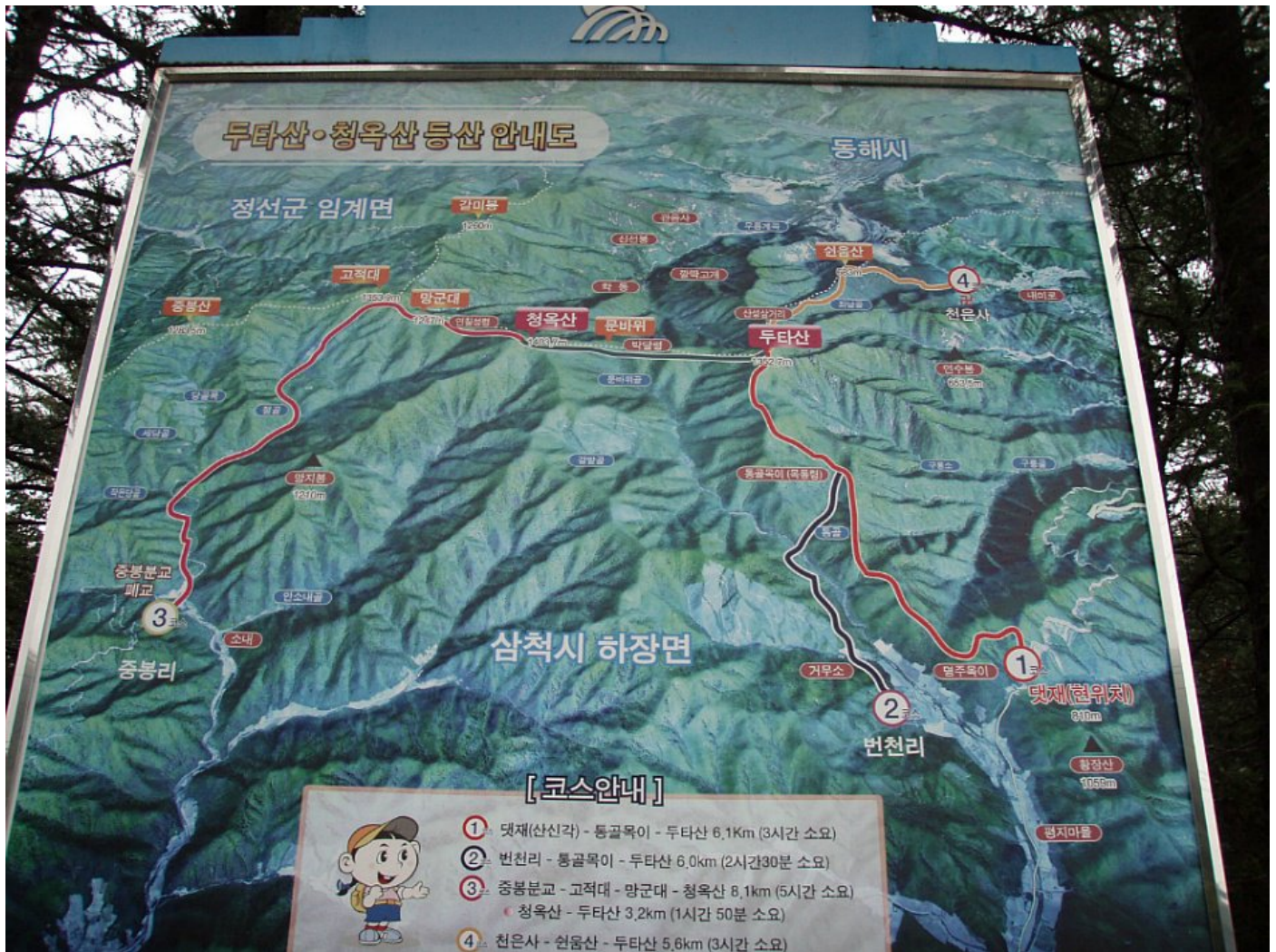
2013년 8월31일 두루두루님 70여명과 함께 댕재에서 두타산까지 백두대간의 첫발을 내딛었다
한여름 흐린날씨속에 습도가 높아 무지 더워서 애 먹었던 산행
아내 체력이 떨어져 하산시 애 많이 먹었던 산행으로 기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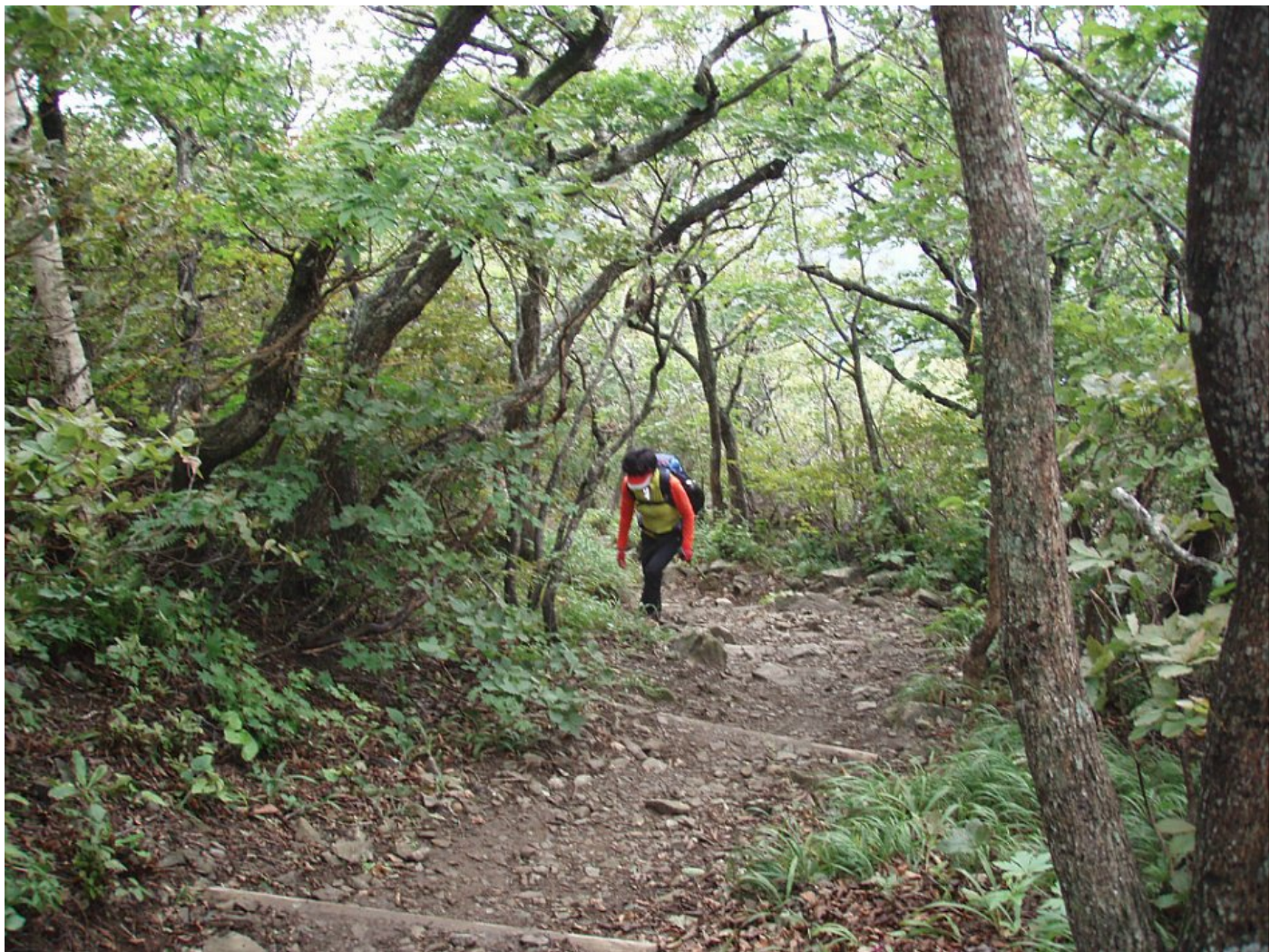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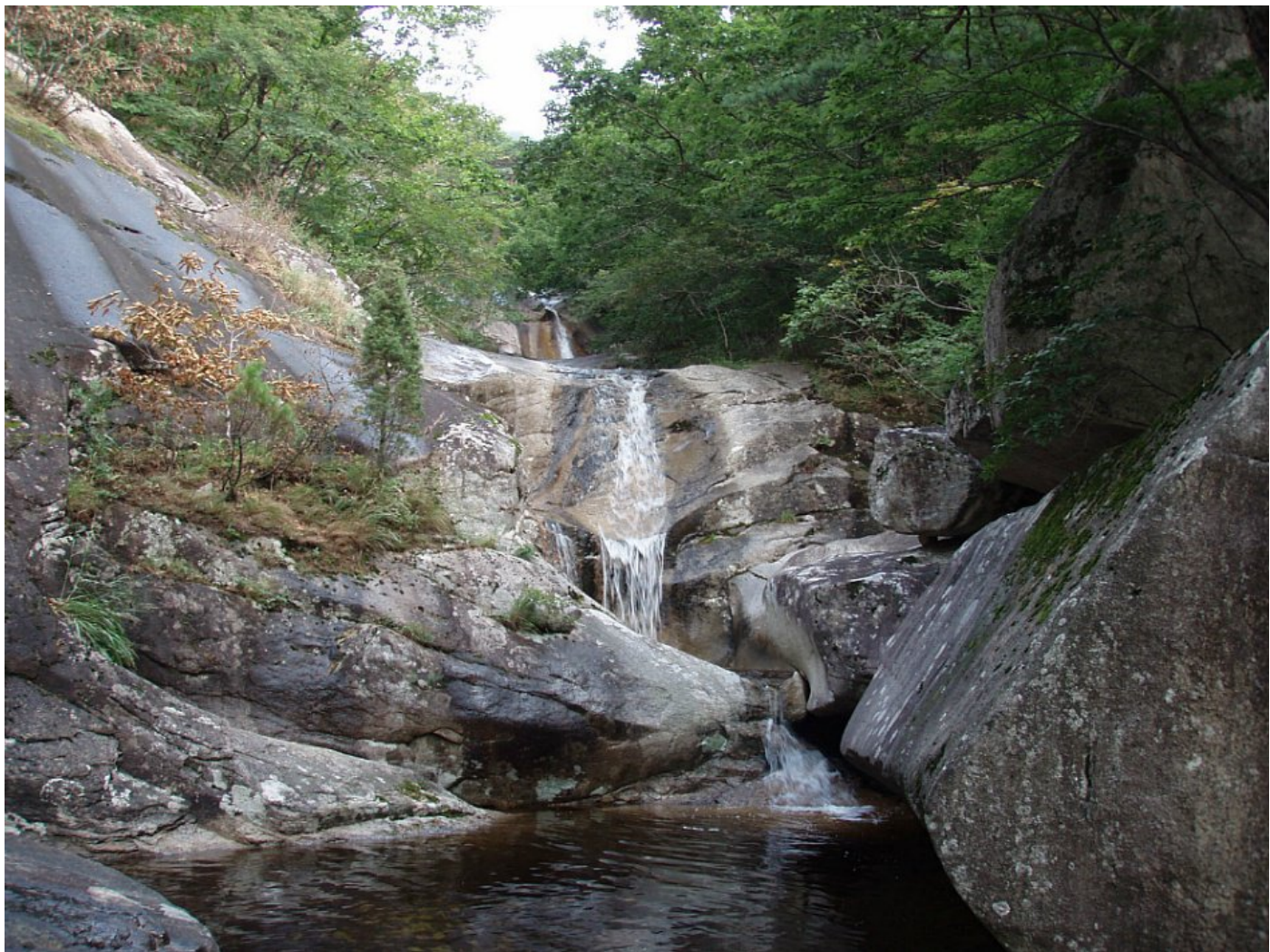




























두타산성 (頭陀山城)

두타산의 험준한 지세를 이용하여 이곳에 산성(山城)을
쌓은것은 신라 파사왕 23년 서기 102년에 일이라 한다
1414년(태종 14) 삼척부사 김맹손(金孟孫)은 이성을 중축
하고 주위 2500미터 높이 2미터의 석성(石城)을 만들었다
1592년 선조 25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났을때 많은
사람들이 난을 피하여 이 산성에 모였고 의병장(義兵將) 최
원흥(崔元興)을 중심으로한 젊은 의병들이 이성을 공격하
는 왜적(倭敵)을 맞아 용감히 싸워 왜병을 전멸시킨 싸움터다
세일이 흘러 성터는 허물어 졌으며 이곳이 선민의 호국정
신(護國精神)이 깃든 곳이기때 표석을 세워 후세에 전한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백두대간의 흔적들...(붉은색은 발길닿은곳~)

중산리-천왕봉-제석봉-연하봉-삼신봉-춧대봉-영신봉-칠선봉-덕평봉-
벽소령-형제봉-명선봉-토끼봉-화개재-삼도봉-반야봉-임걸령-돼지령-
성삼재-/-

(26)성삼재-노고단-코재-종석대-성삼재-작은고리봉-묘봉치-만복대-정
령치-고리봉-고기리도로-노치마을-/-

(25)노치마을-덕운봉-수정봉-입망치-여원재-고남산-통안재-유치재-/-

(31)유치재-사치재-새맥이재-시리봉-복성이재-/-

(6)복성이재-치재-다리재-매봉-봉화산-큰봉-월경산-광대치-중재(중
치)-/-

(3)중고개재(중치)-백운산-영취산-덕운봉-무령고개-/-

(4)무령고개-민령-깃대봉-육십령-/-

육십령-할미봉-신평령-남덕유산 서봉-남덕유산-월성치-삿갓봉-삿갓골
재-무룡산-동엽령-/-

동엽령-덕유산백암봉-귀봉-횡경재-지봉-월음령-대봉-갈미봉-빠재-/-

(13)빠재-수정봉-된새미기재-호절골재-삼봉산-소사고개(소사재)-/-

(36)소사고개-삼도봉-대덕산-덕산재-/-

(29) 덕산재-부항령(질매재)-백수리산-삼도봉-삼마골재-/-

(27) 삼마골재-밀목령-화주봉(석교산)-우두령-/-

(5) 우두령-바람재-형제봉-황악산-백운봉-운수봉-여시골산-괘방령-/-

(14) 괘방령-가성산-장군봉-눌의산-추풍령-금산-사기점고개-묘함산-작점고개-/-

(15) 작점고개-갈현-용문산-국수봉-큰재-/-

(16) 큰재-회룡산-개터재-윗왕실임도-백학산-백학산임도-개머리재-지기재-/-

(17) 지기재-신의터재-윤지미산-화령재-/-

(18) 화령재-봉황산-비재-삼형제바위-못제(천지)-갈령-/-

(20) 갈령-형제봉-피앗재-대목삼거리-속리산 천황봉-/-

비로봉-입석대-신선대-문수봉-문장대-밤티재-늘재-/-

(21) 늘재(늘재)-청화산-갯바위재-조항산-고모령-밀재-/-

(23) 밀재-대야산-춧대재-춧대봉-불란치재-곰넘이봉-버리미기재-/-

(32) 버리미기재-장성봉-악취봉-은티재-주치봉-구왕봉-지름티재-/-

지름티재-희양산-시루봉-이만봉-곰틀봉-사다리재-평전치-백화산-황학산-조봉-이화령-/-

(10) 이화령-조령산-신선암봉-깃대봉-조령3관문-/-

(2) 조령3관문-문경새재(조령)-마패봉-부봉-평천재-탄향산(월향삼봉)-하늘재-/-

(7) 하늘재--포함산-관음재-마골치-꼭두바위봉-부리기재-부리기재-대

미산-/-

새목재-차갓재-작은차갓재-/-

(33)작은차갓재-황장산-감투봉-황장재-폐백이재-벌재-문봉재-저수령-/-

(8)저수재(저수령)-춧대봉-투구봉-시루봉-배재-싸리재-흙목-뱀재-솔
봉-모시골산-묘적령-고항치-/-

(34)고항치-묘적봉-도솔봉-삼형제봉-고치령,죽령-/-

제2연화봉,제1연화봉-소백산비로봉-국망봉-상월봉-늦은맥이-마당치-
고치령-미내치-마구령-갈곶산-늦은목이-선달산-박달령-고항치-옥돌
봉-도래기재

도래기재-우구치-임도-금정임도-구룡산-곰넘이재-신선봉-깃대배기
봉-부소봉-태백산-화방재

(37)화방재-수리봉-창옥봉-만항재-함백산-은대봉-싸리재(두문동재)-금대
봉-비단봉-삼수령(피재)-/-

(12)피재(삼수령)-매봉산-건의령(한의령)-풋대봉-한내령-구부시령-덕항
산-환선봉-자암재-큰재-

황장산-땃재-/-

(1)땃재-두타산-/-

(9)박달령-청옥산-연철성령-망군대-고적대-갈미봉-이기령-상월산-원
방재-백복령-/-

(19)백복령-자병산-생계령-석병산-두성봉-삽당령-석두봉-화란봉-닭목

(28)답목재-고루포기산-횡계현-능경봉-대관령-/-

진고개-동대산-두로봉-신배령-만월봉-응복산-마늘봉-약수산-구룡령-
/-

(24) 조침령-신조침령-북암령-단목령-점봉산-망대암산-필례령-한계령-
/-

소청봉-무너미재-천화대-나한봉-마등령-/-

(11)미시령-상봉-화암재-신선봉-대간령(새이령),큰새이령-마산봉-진부령(칠절봉,향로봉)-/-

산경표에 따른
산경도

0 10km 20km 30km 40km

4346, 3.22
외공사
017-401-6167

37°00'

12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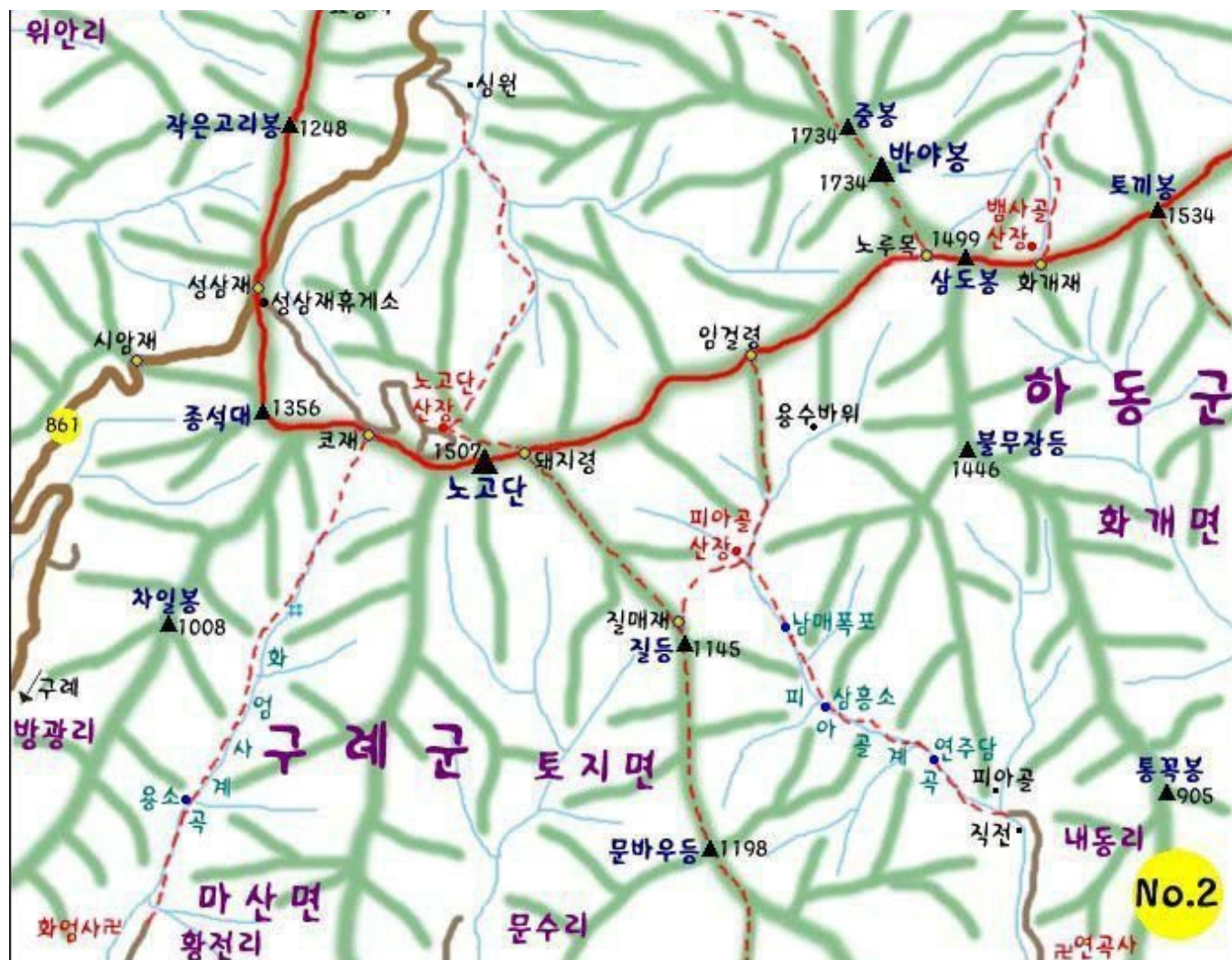




백두대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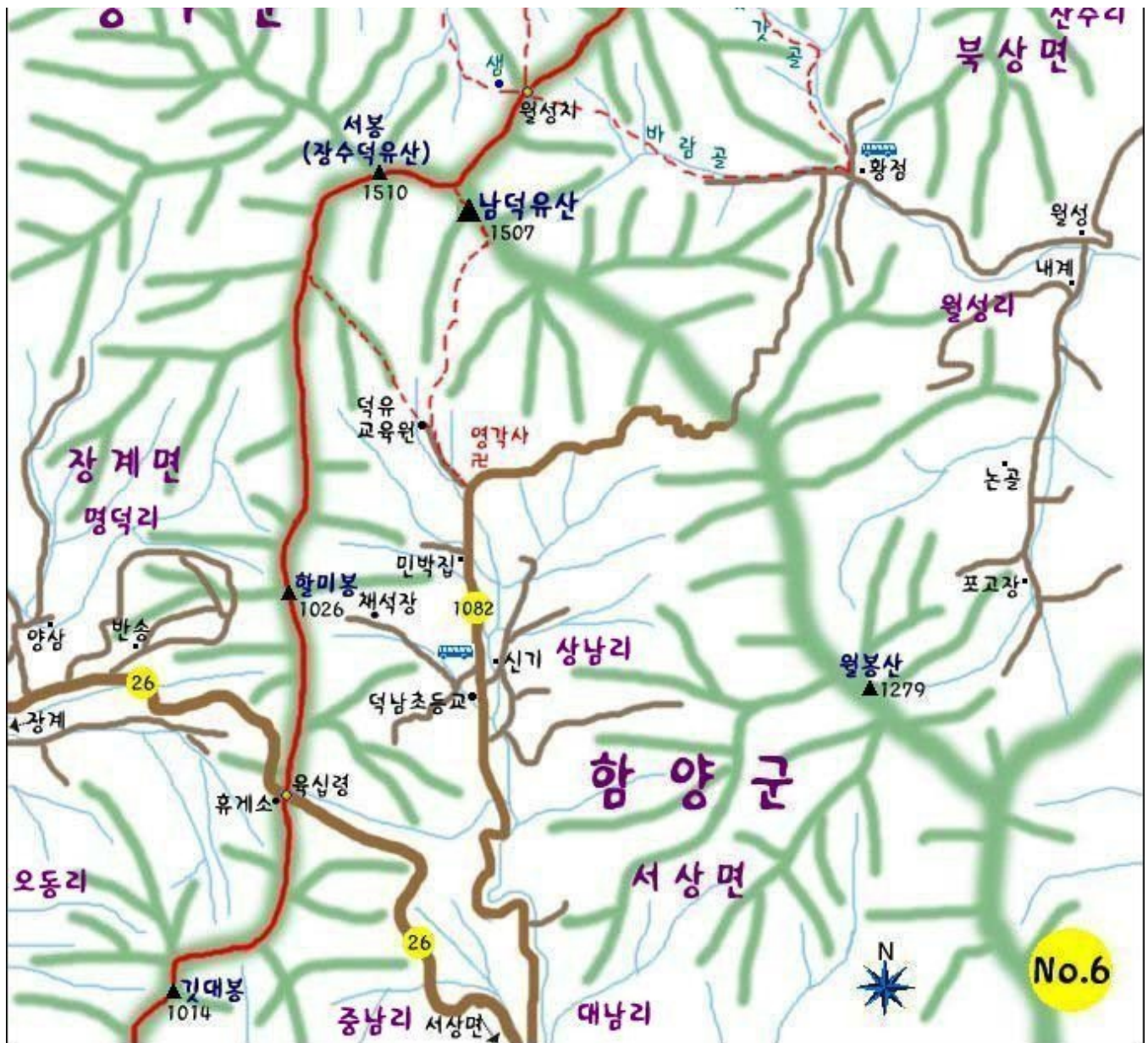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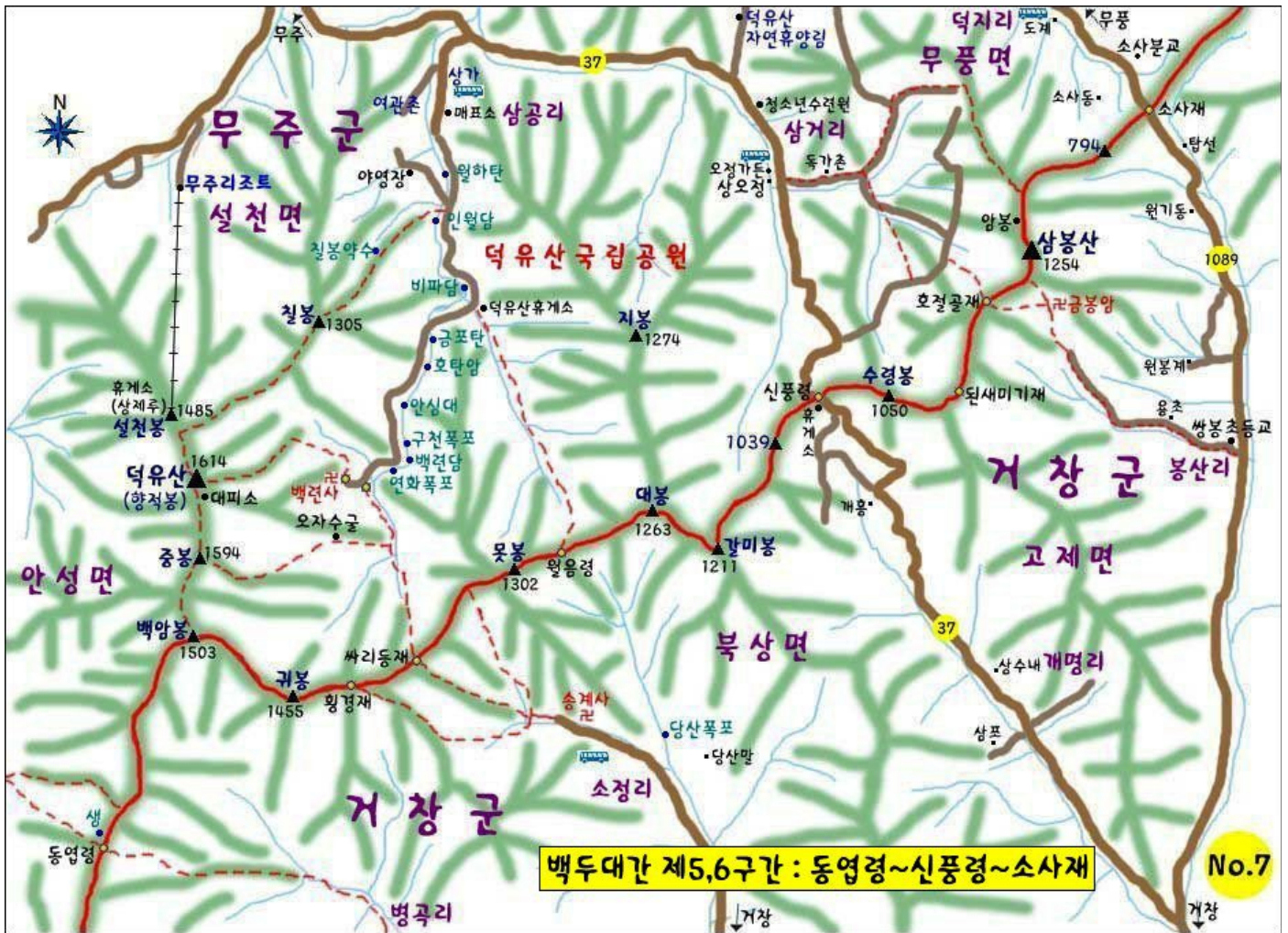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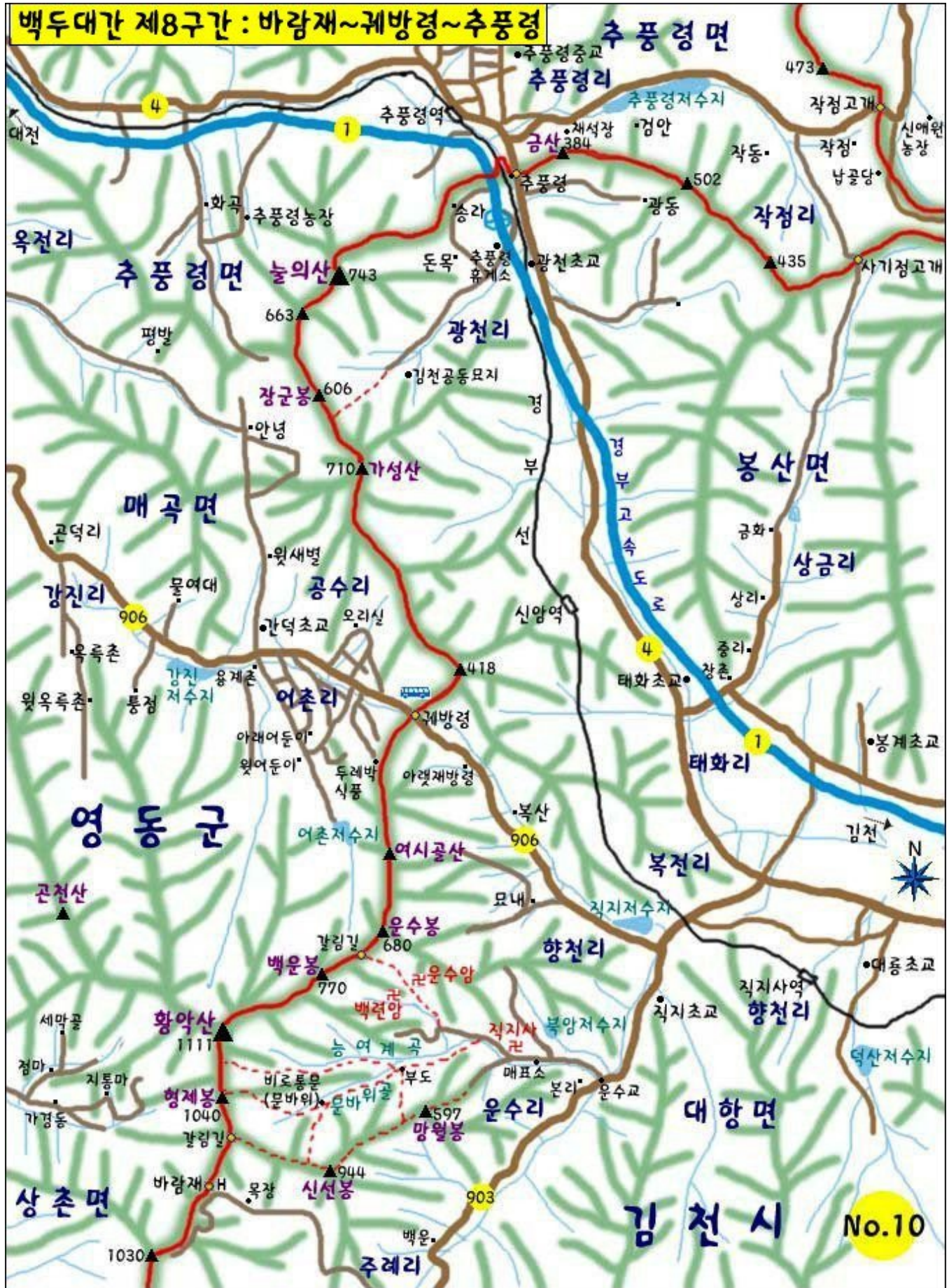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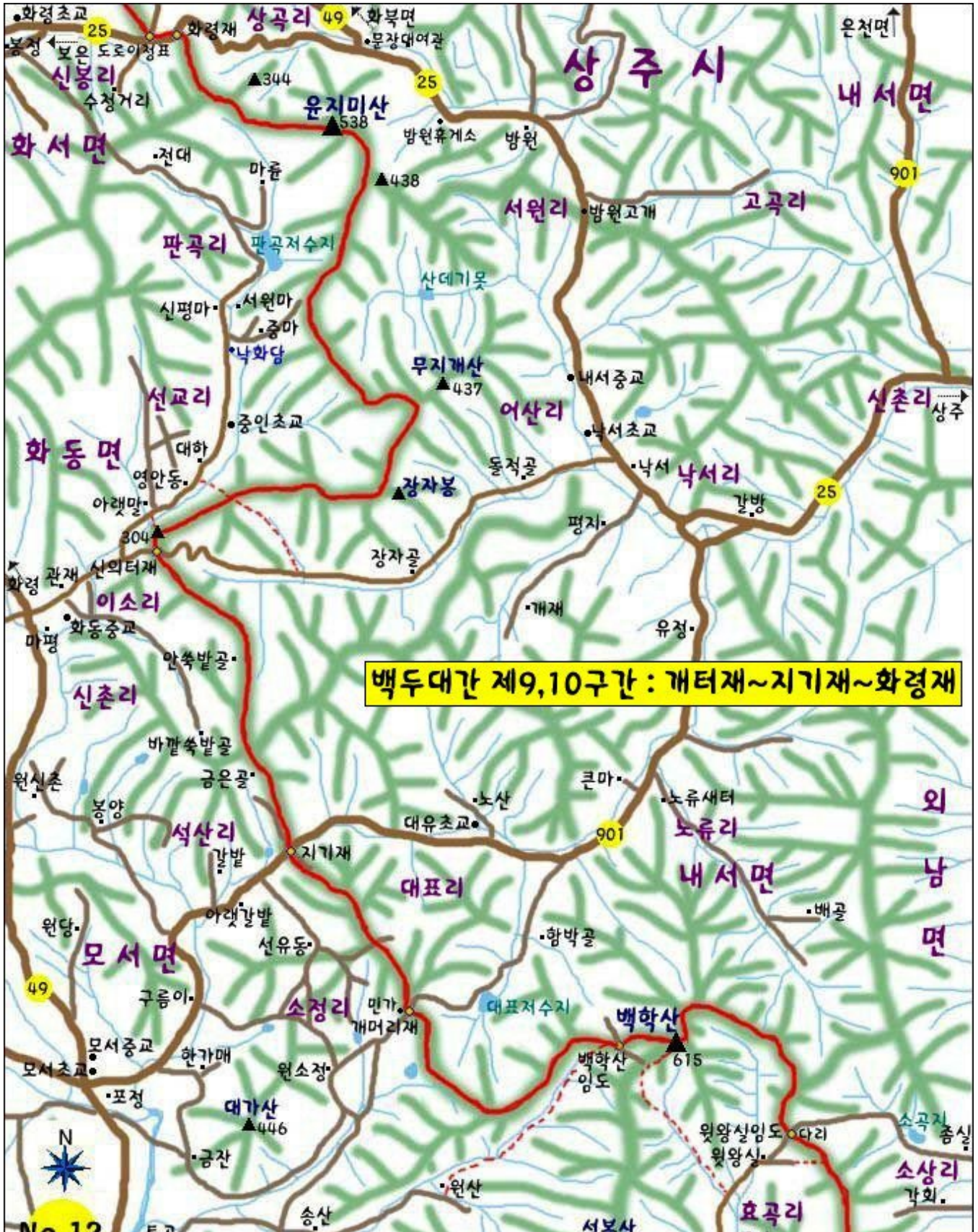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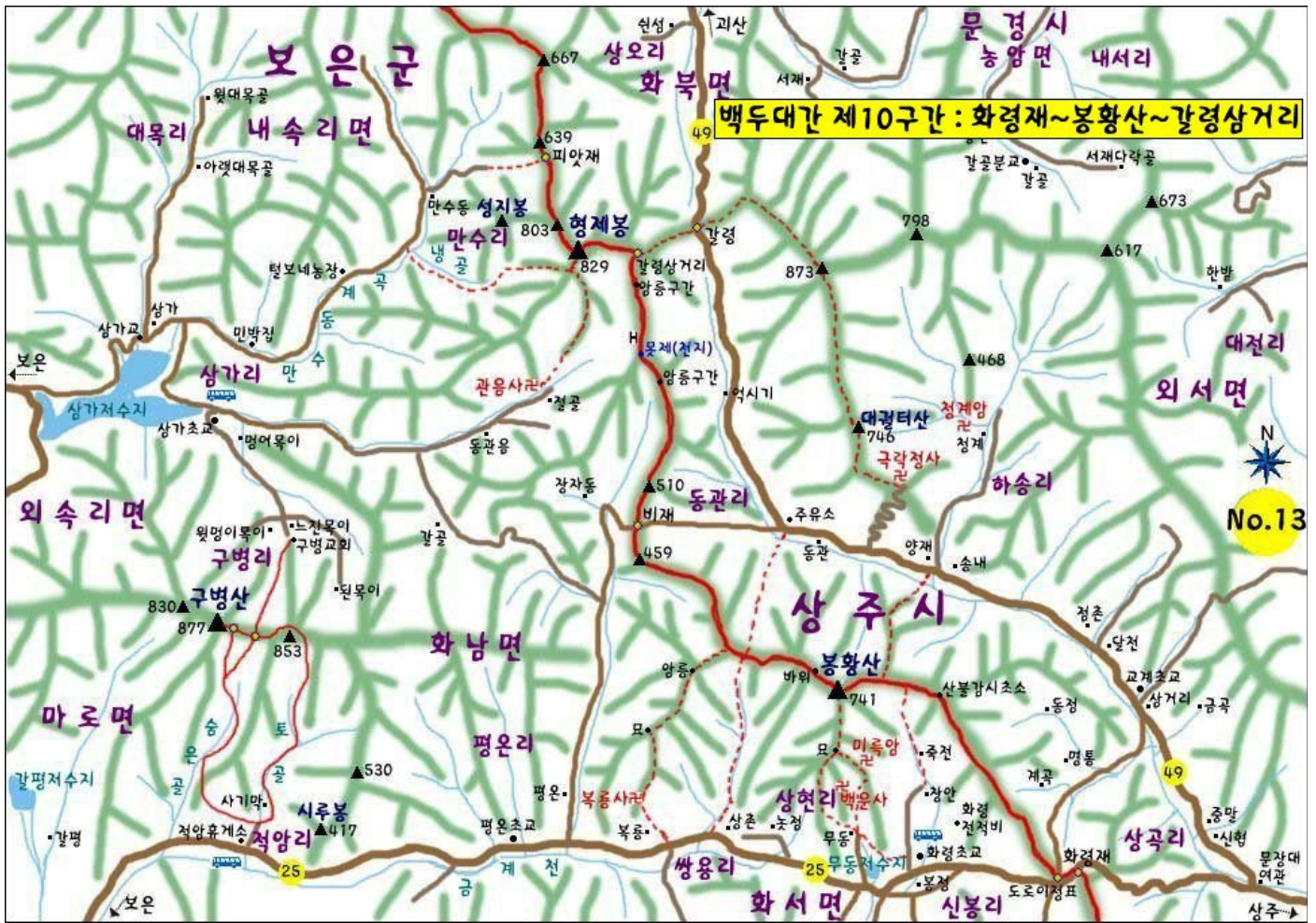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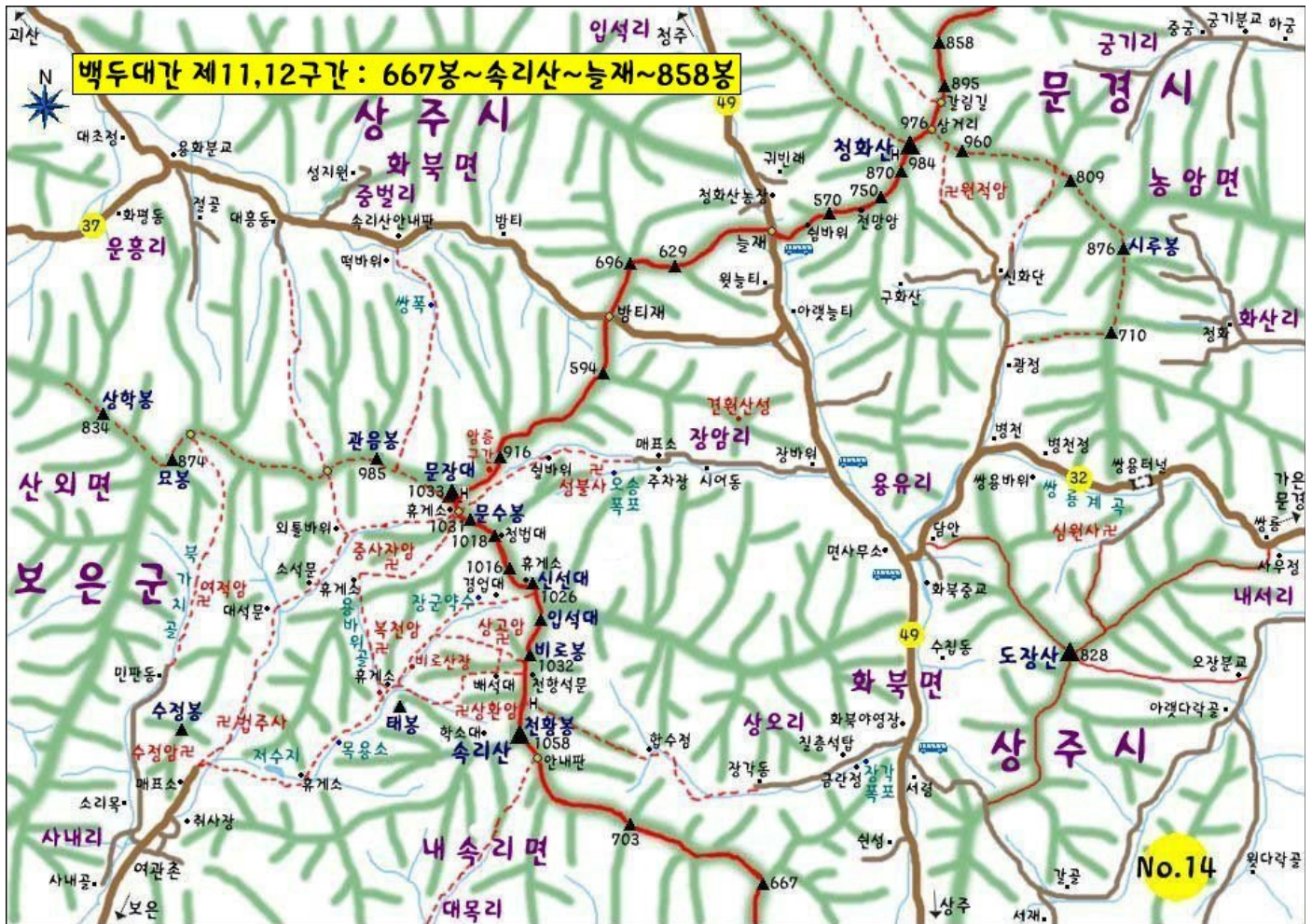


백두대간 제8구간 : 바람재~계방령~추풍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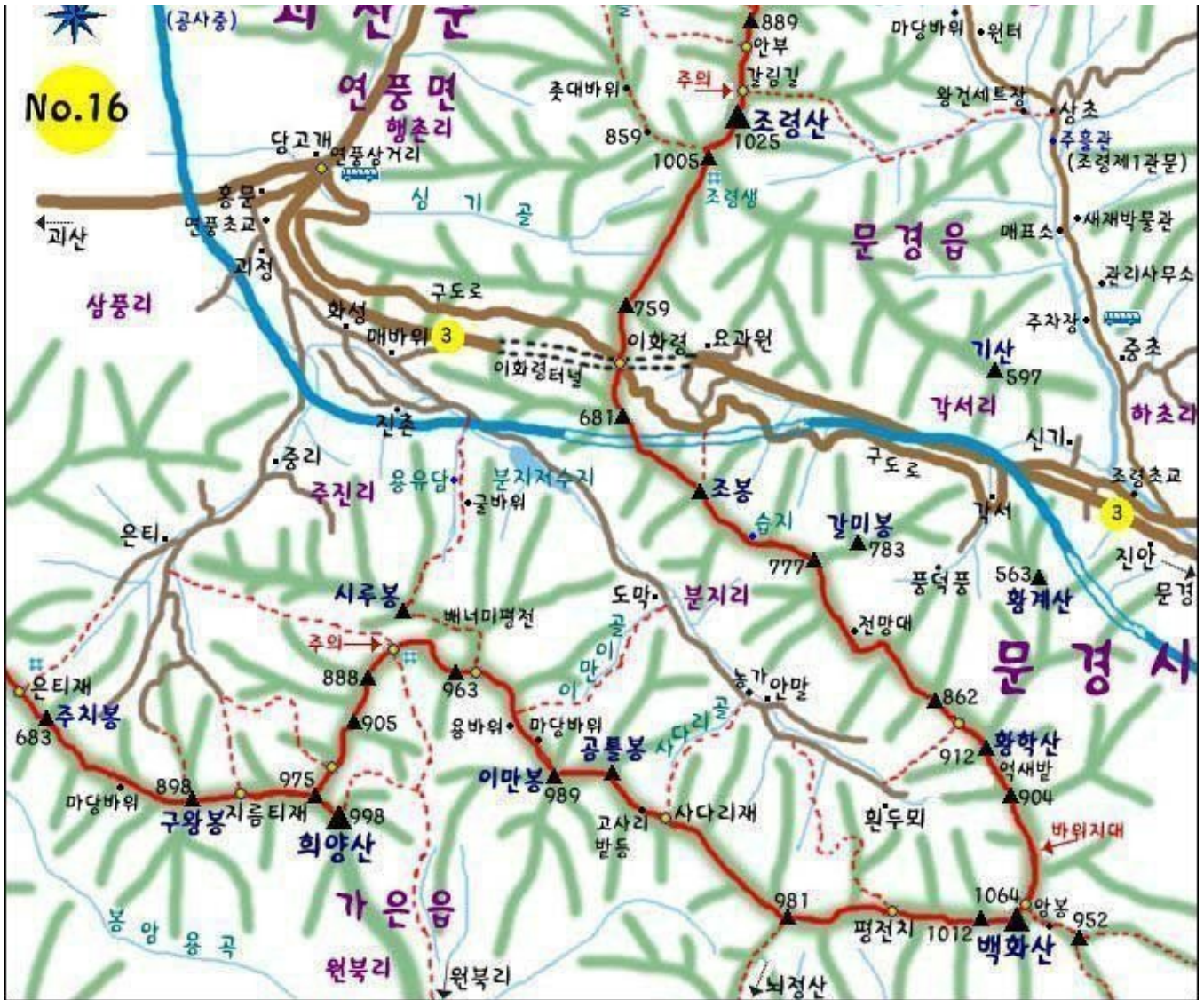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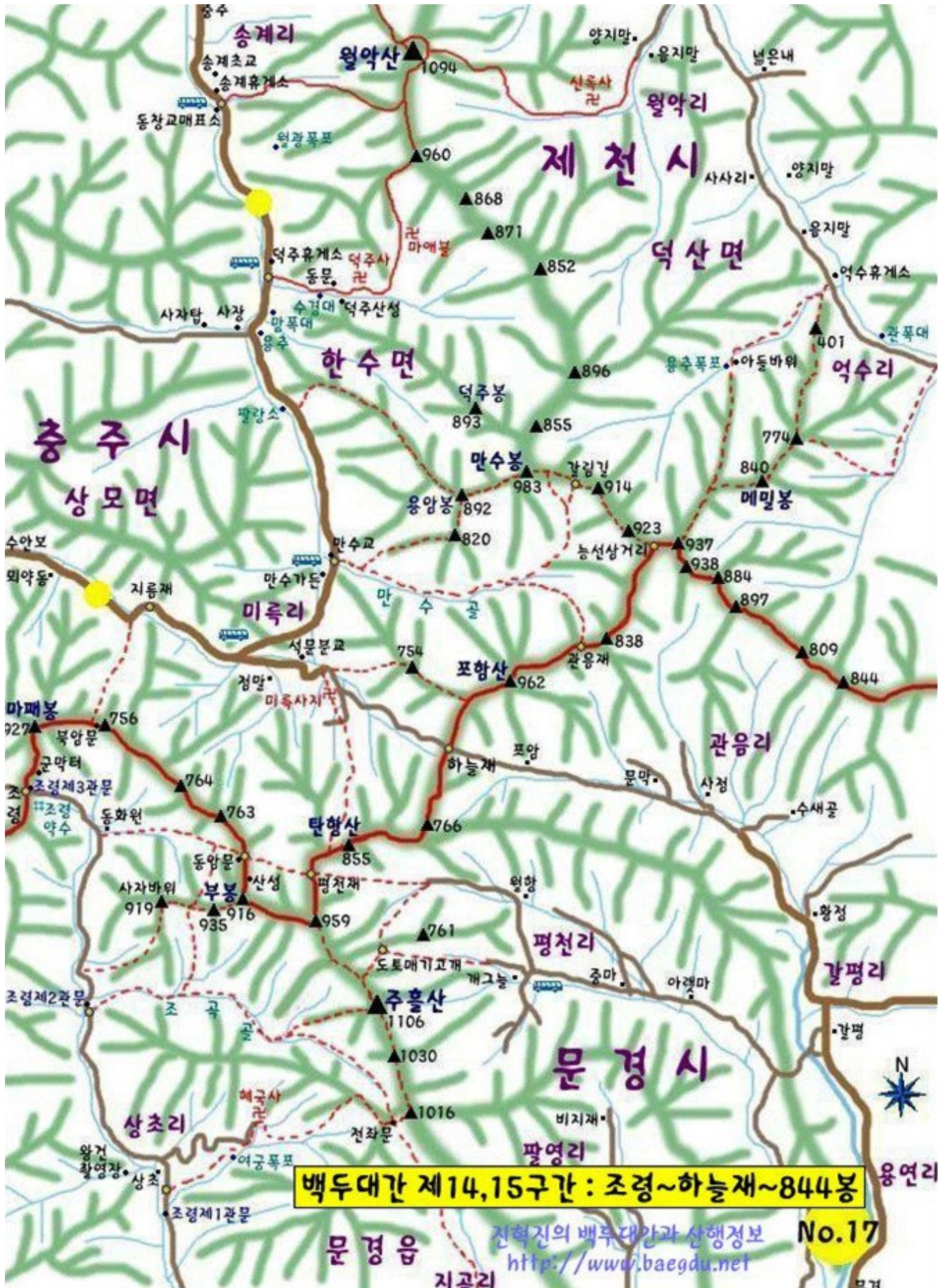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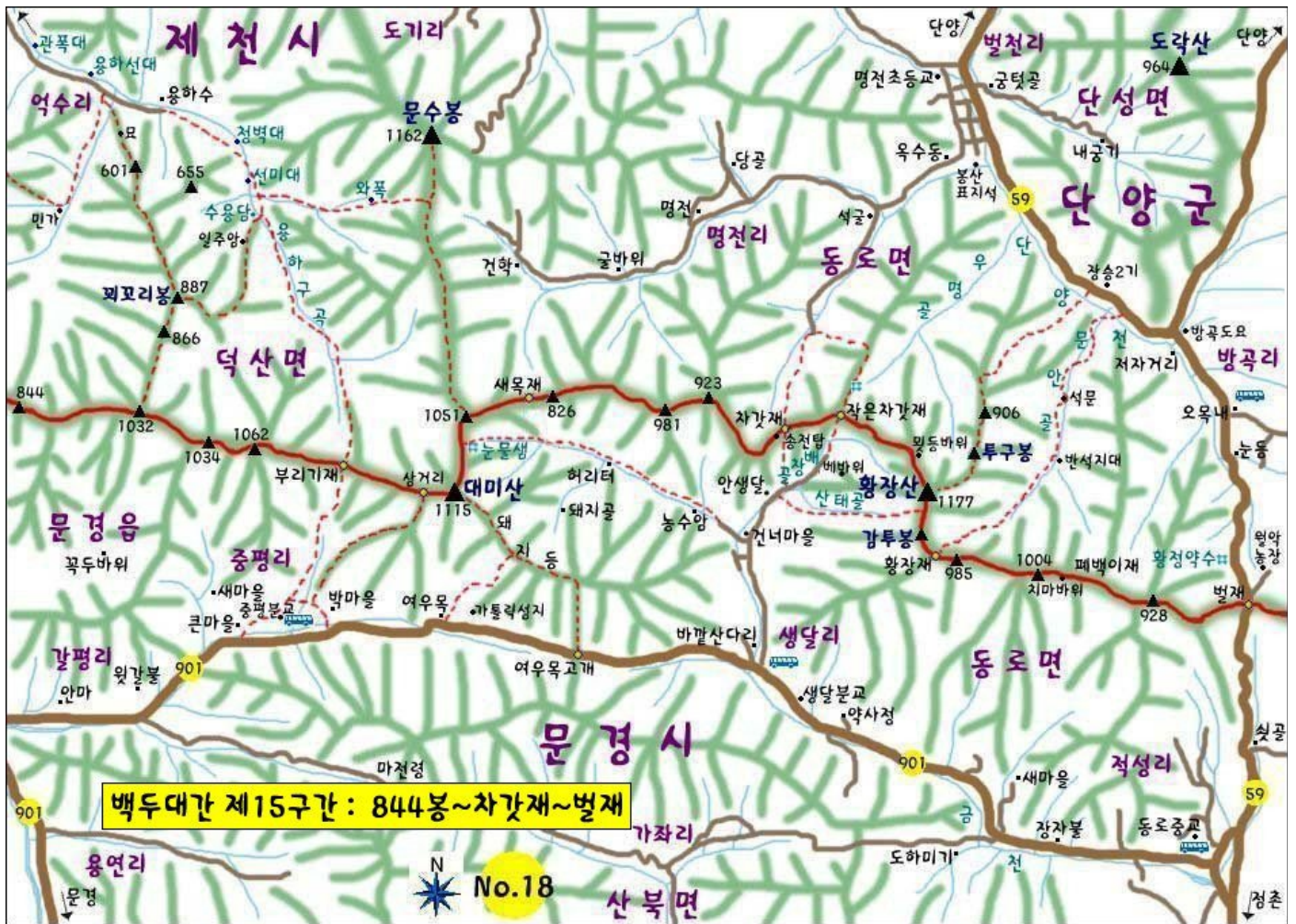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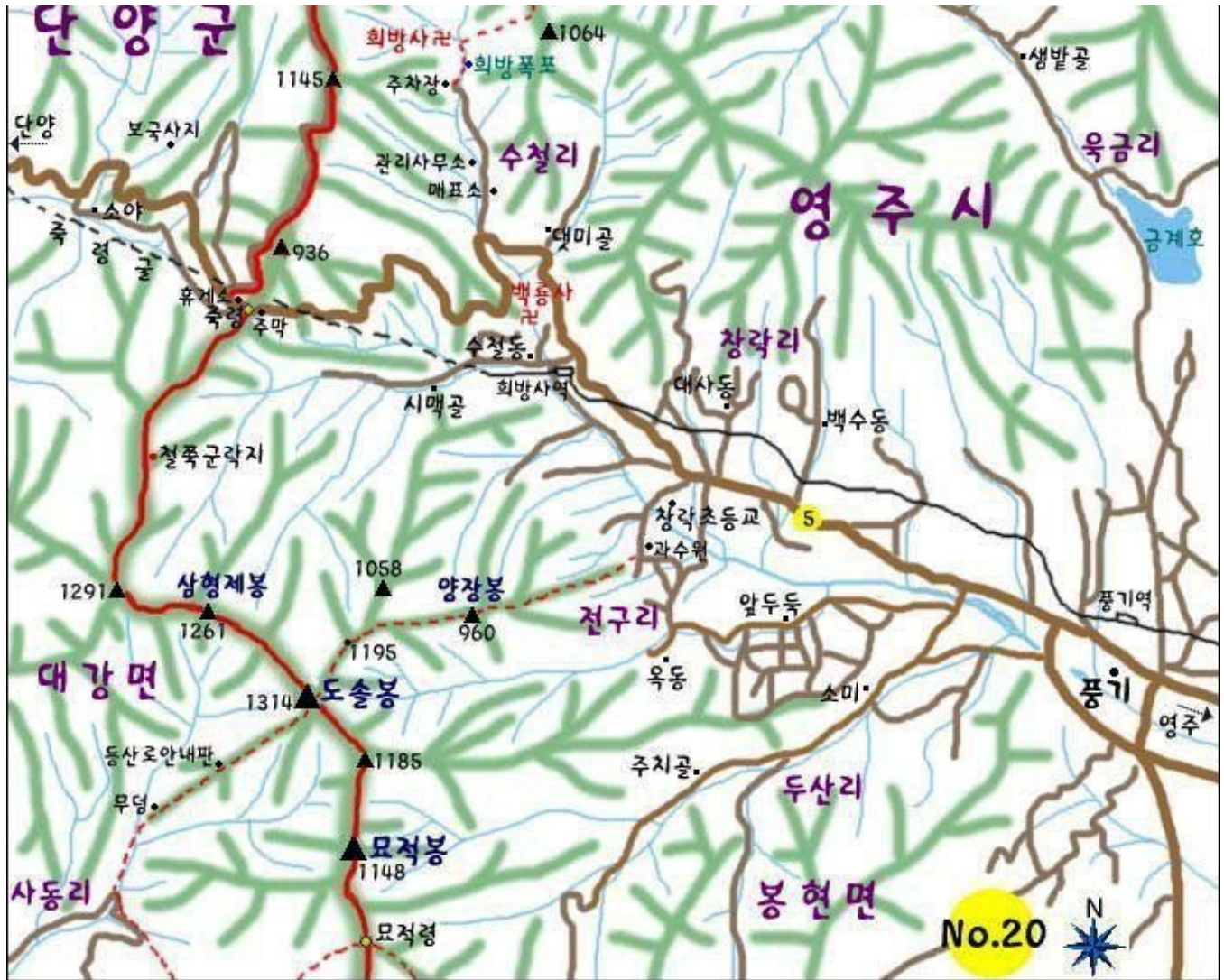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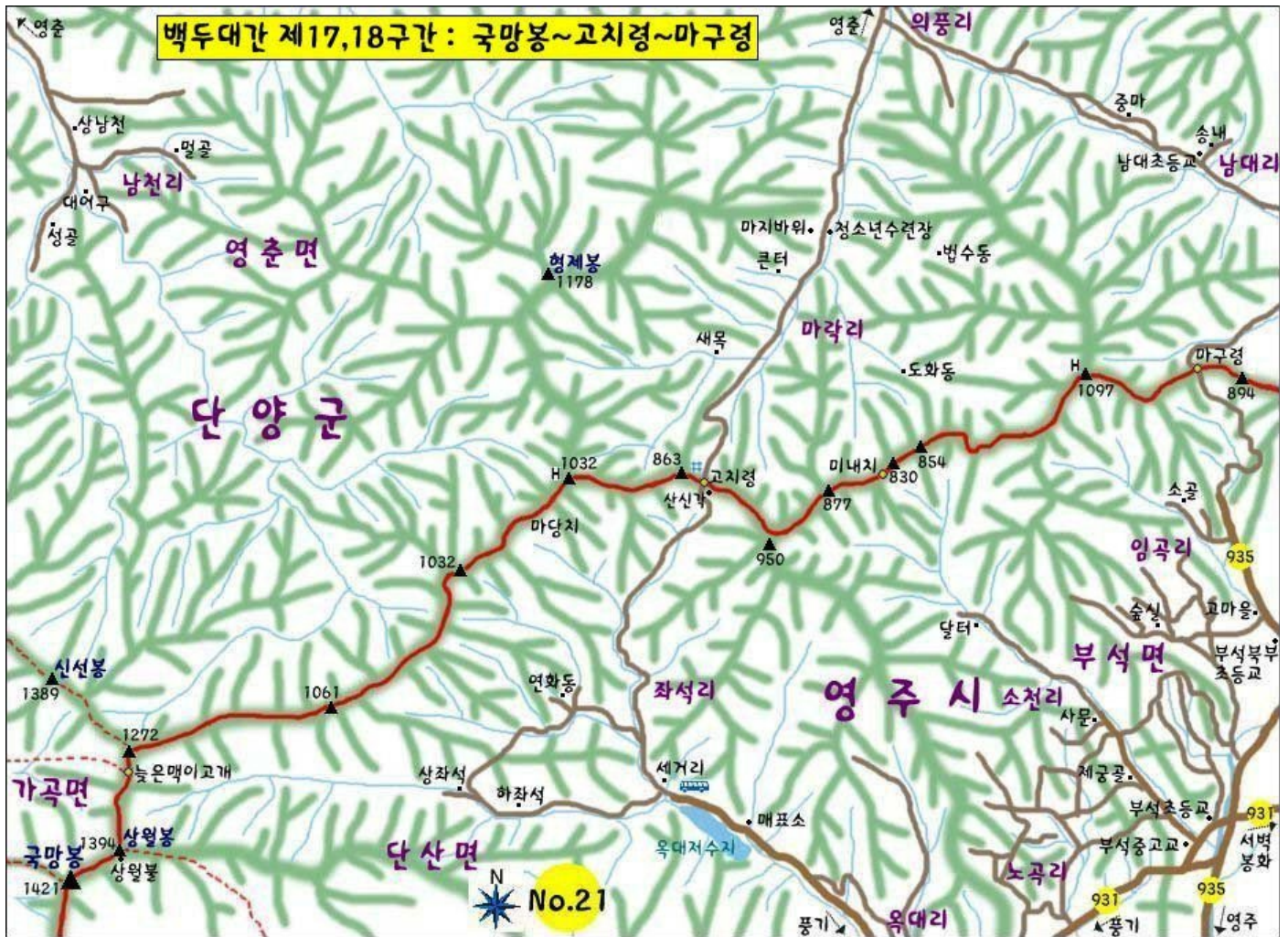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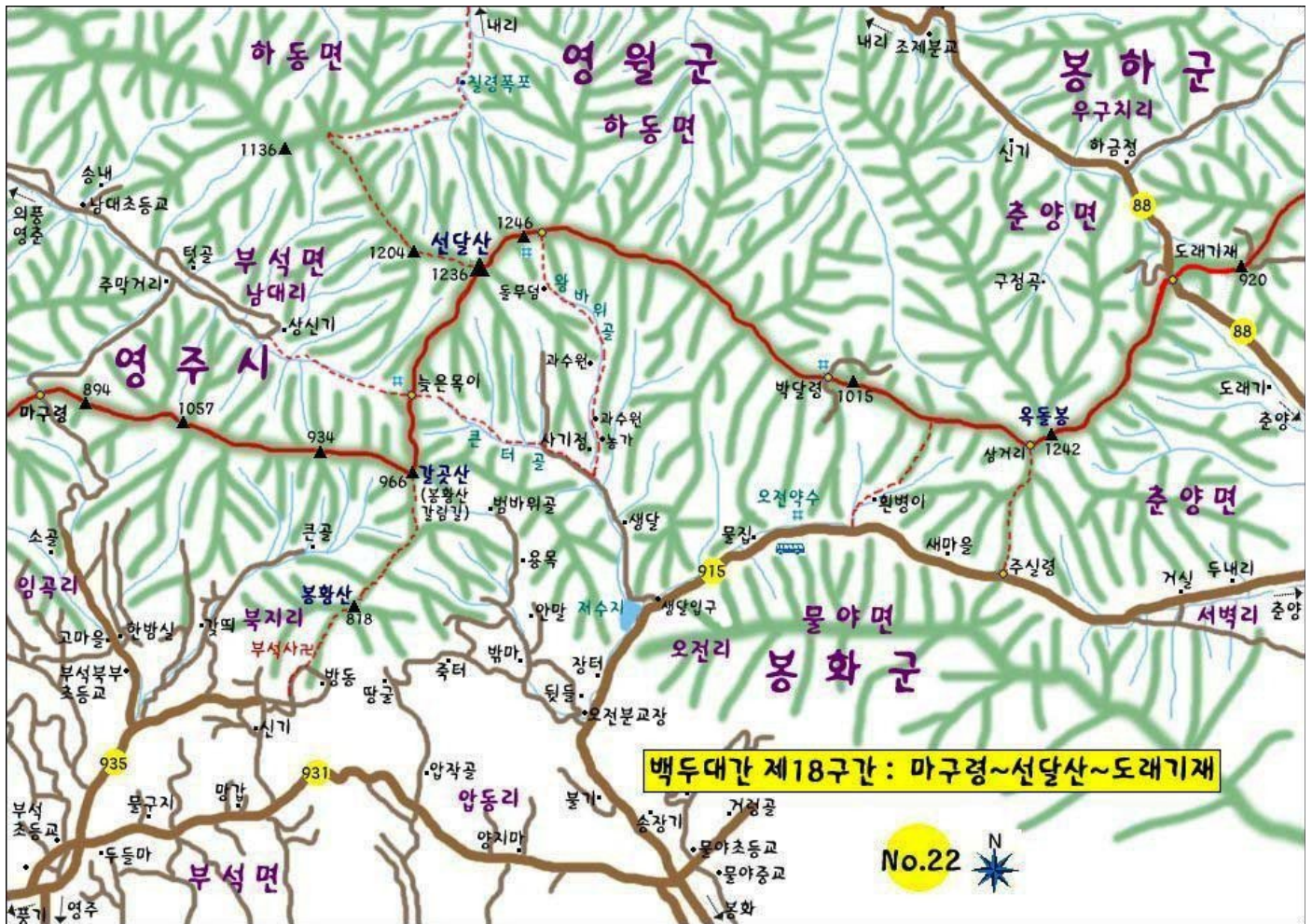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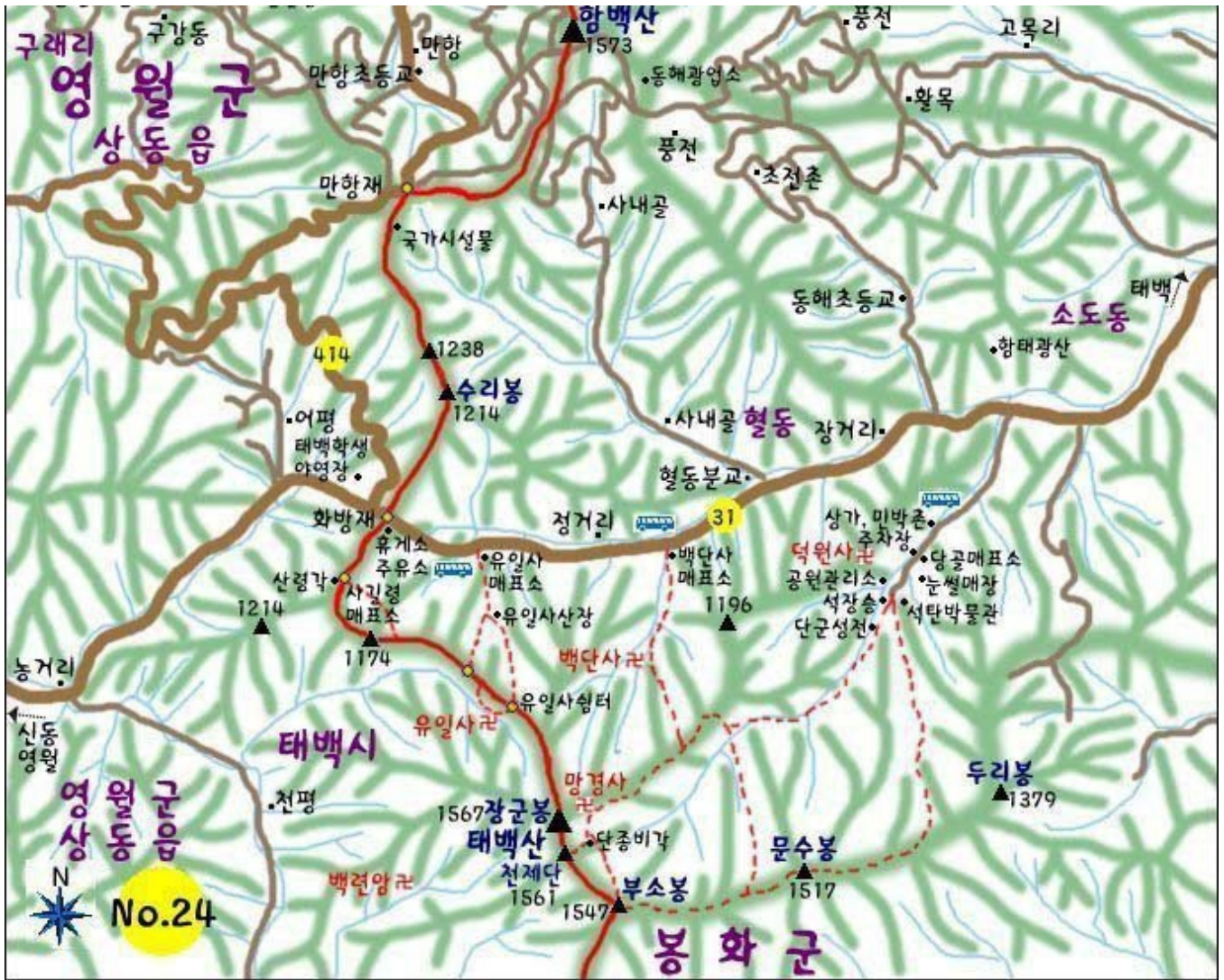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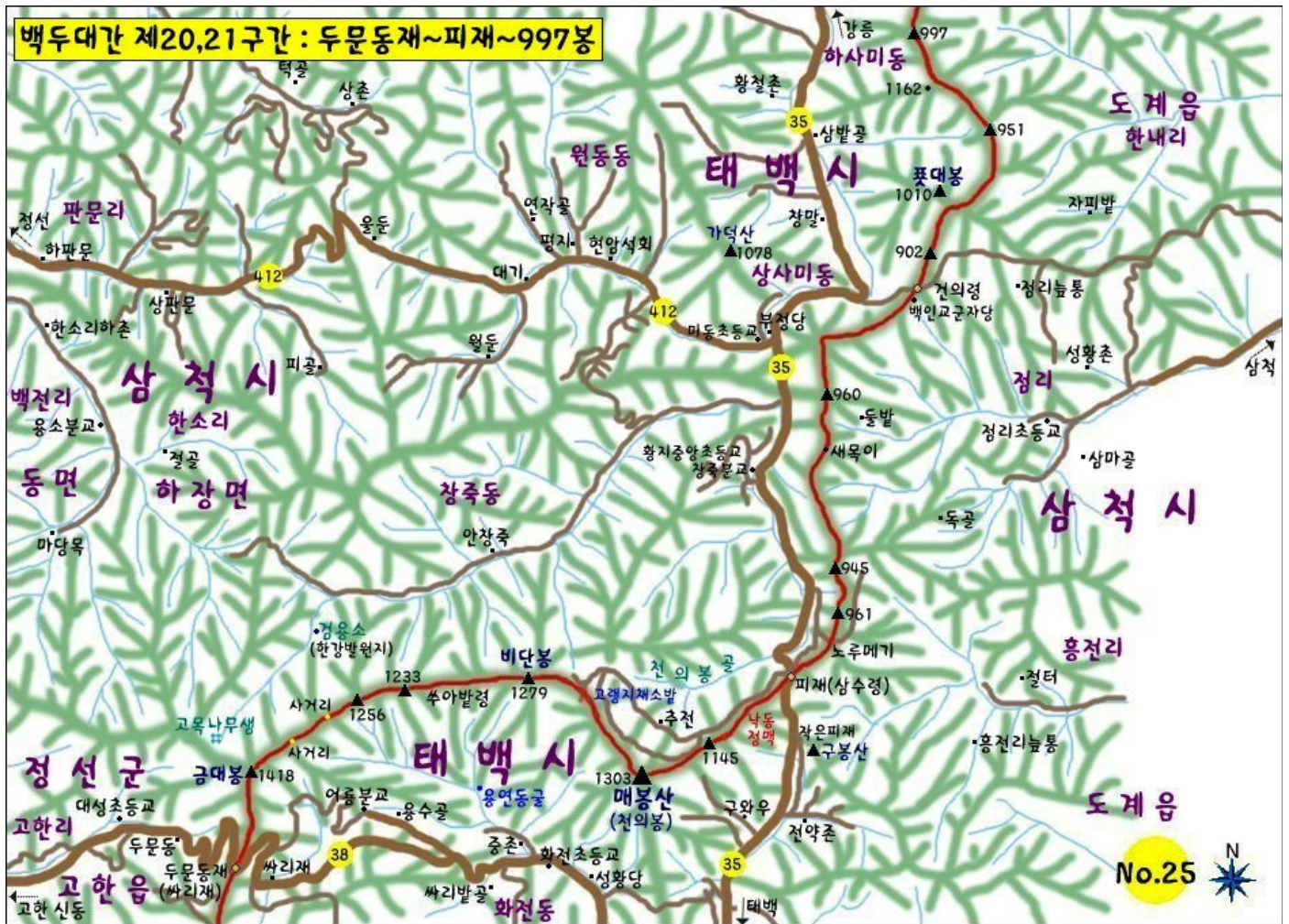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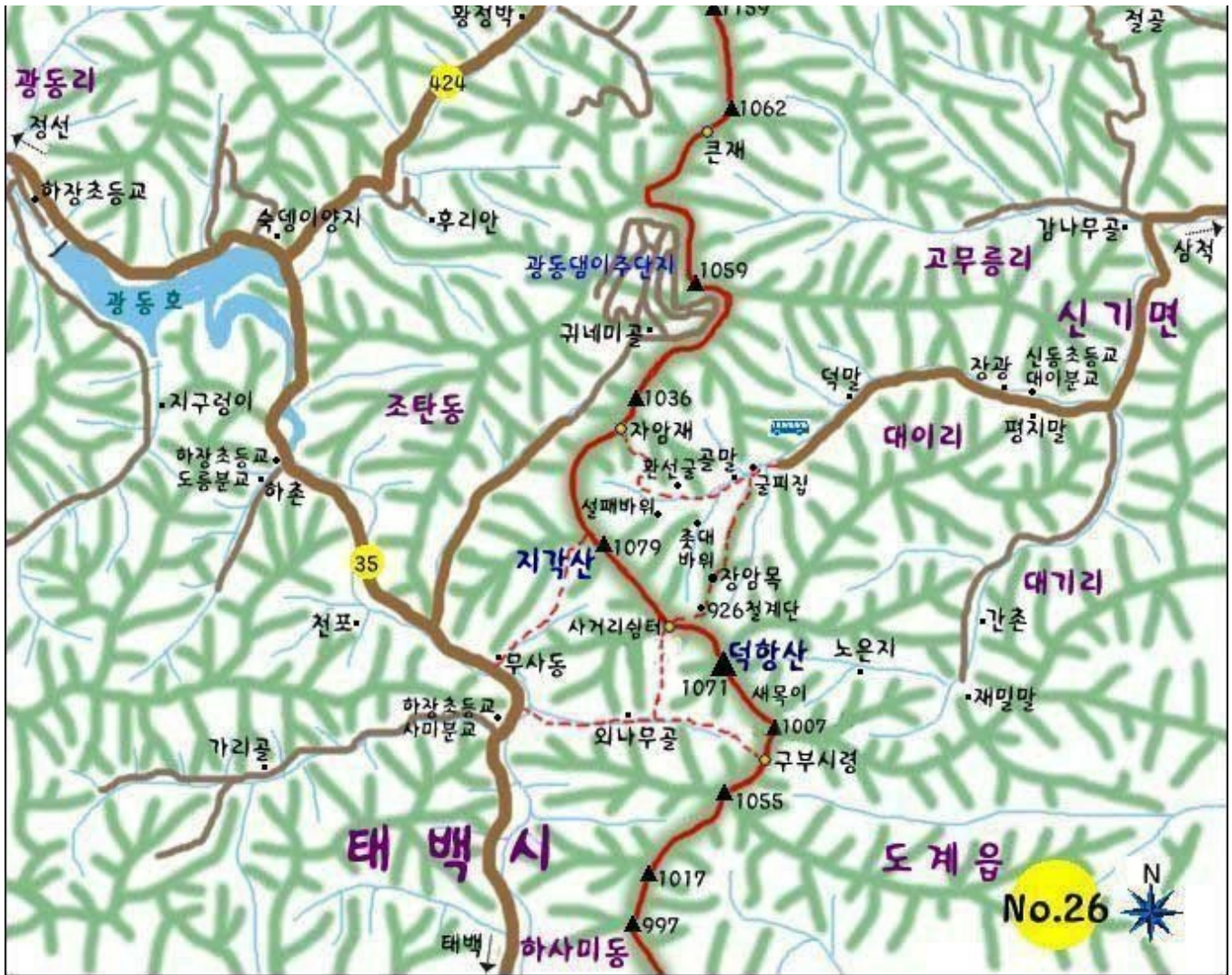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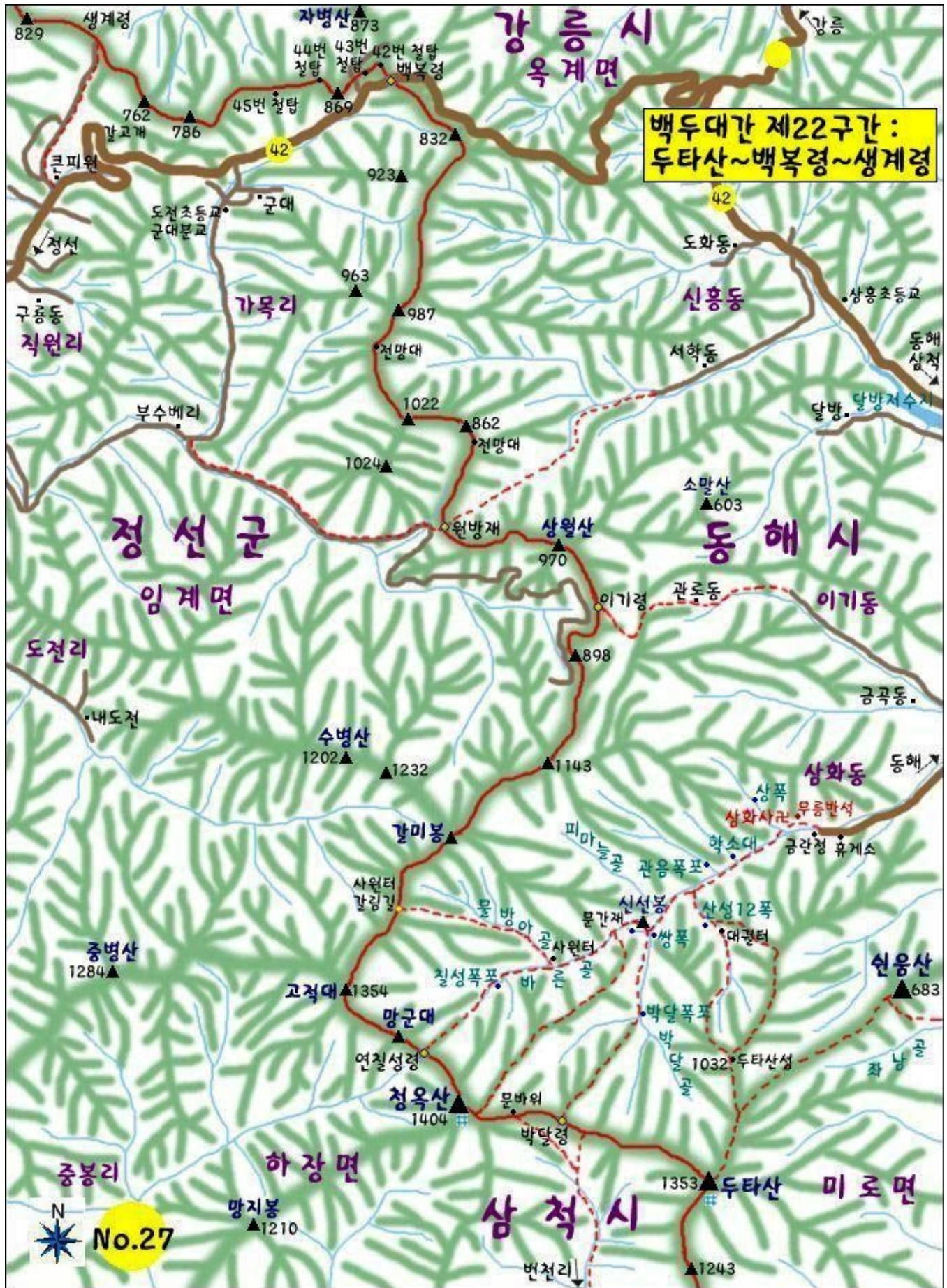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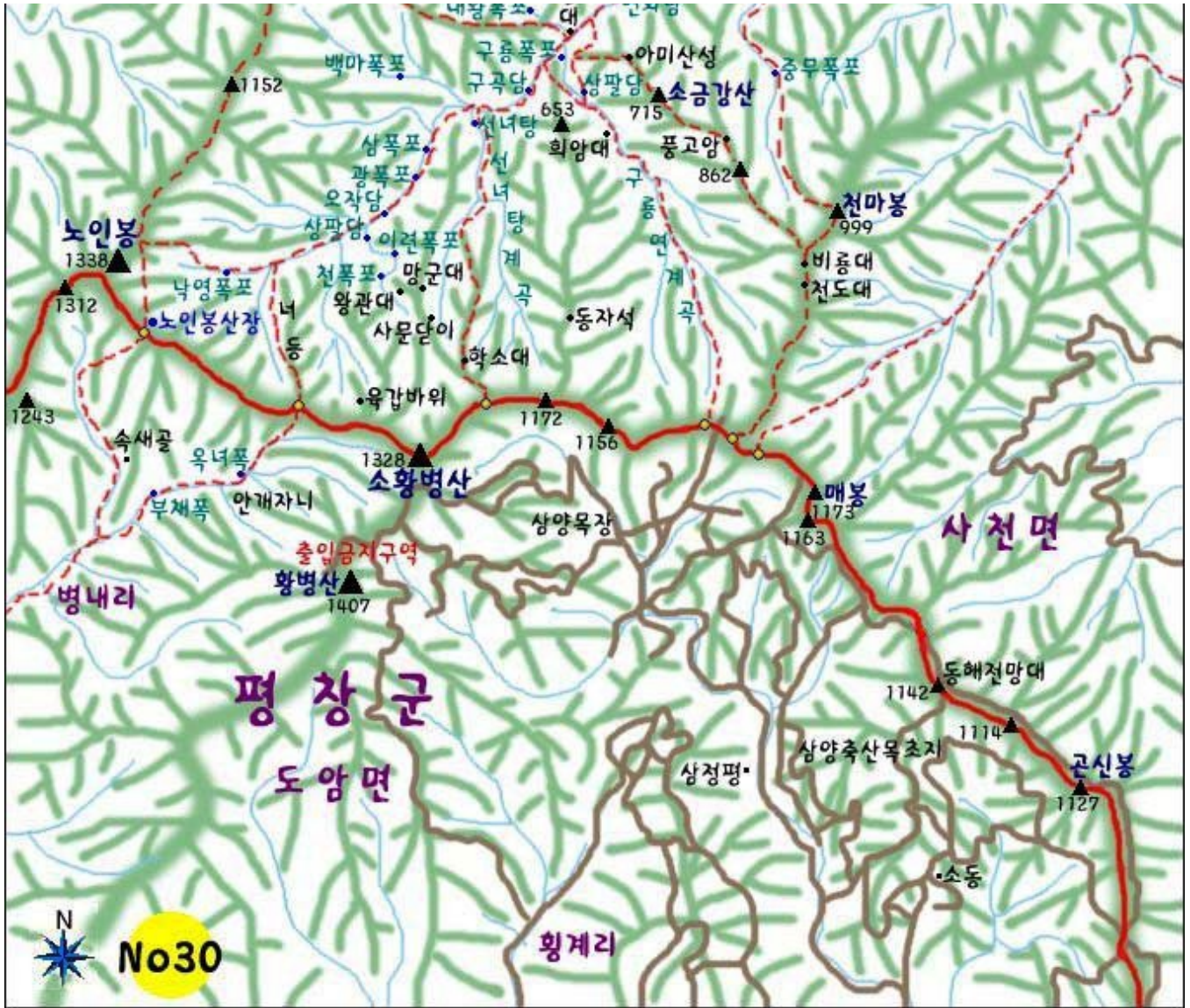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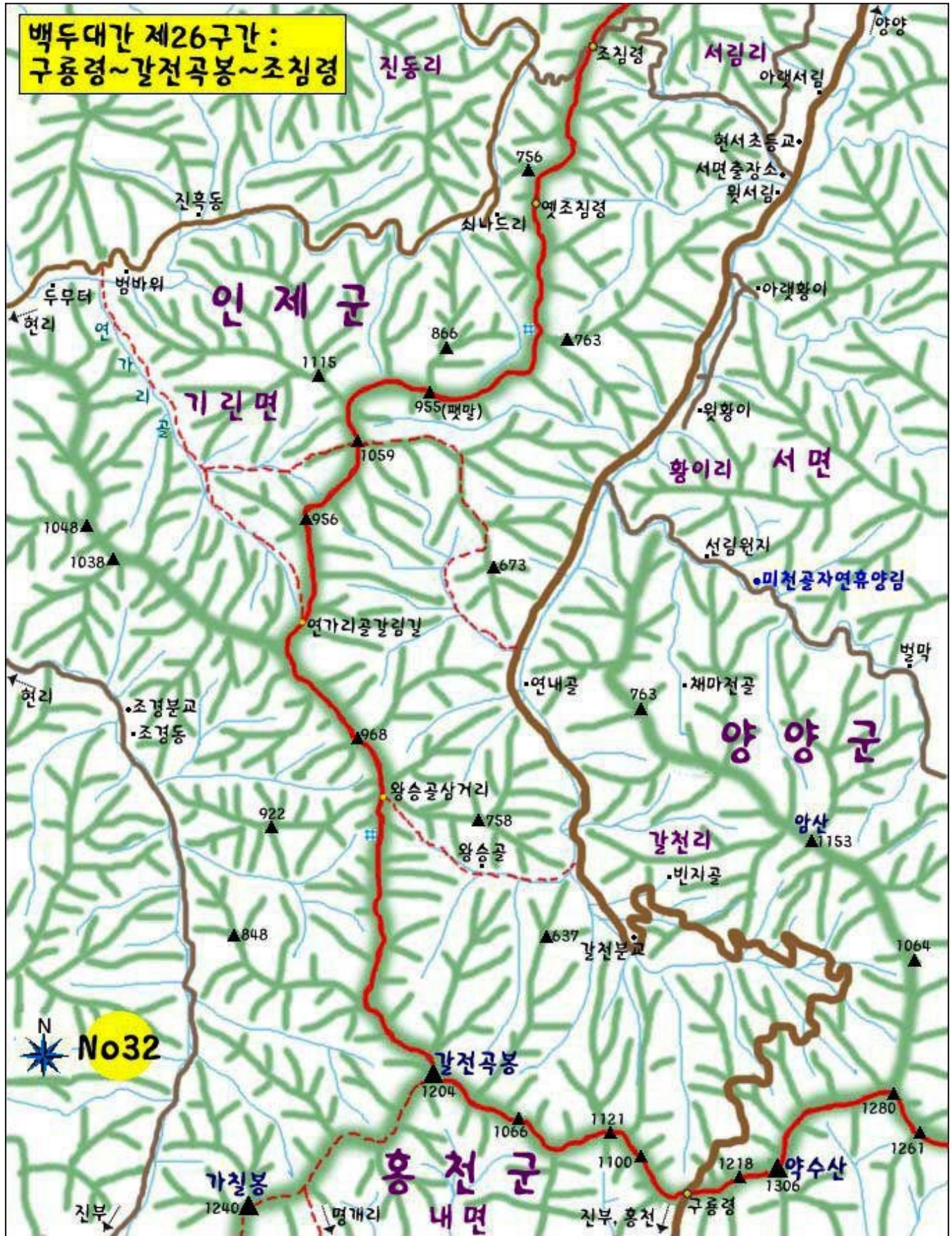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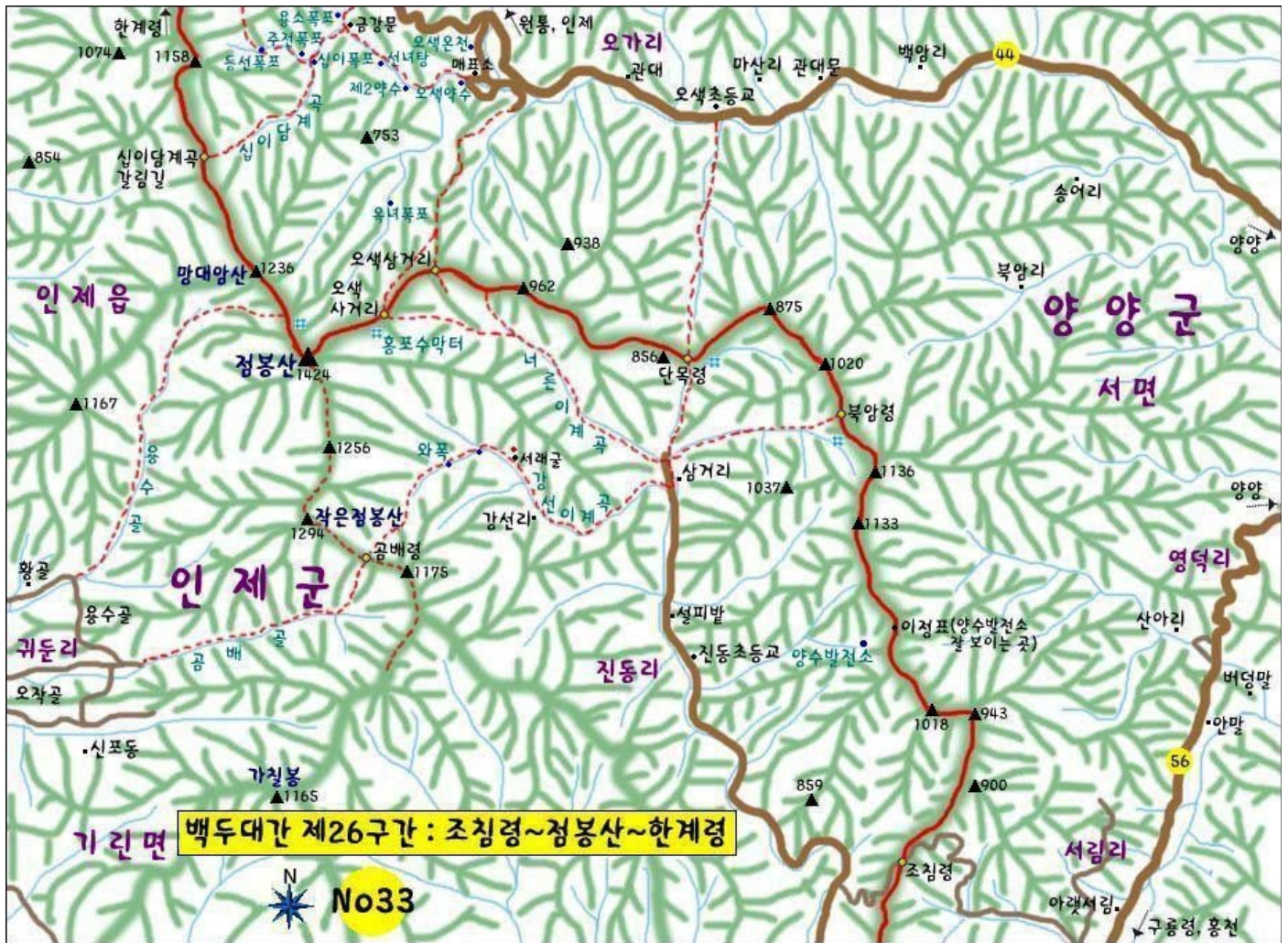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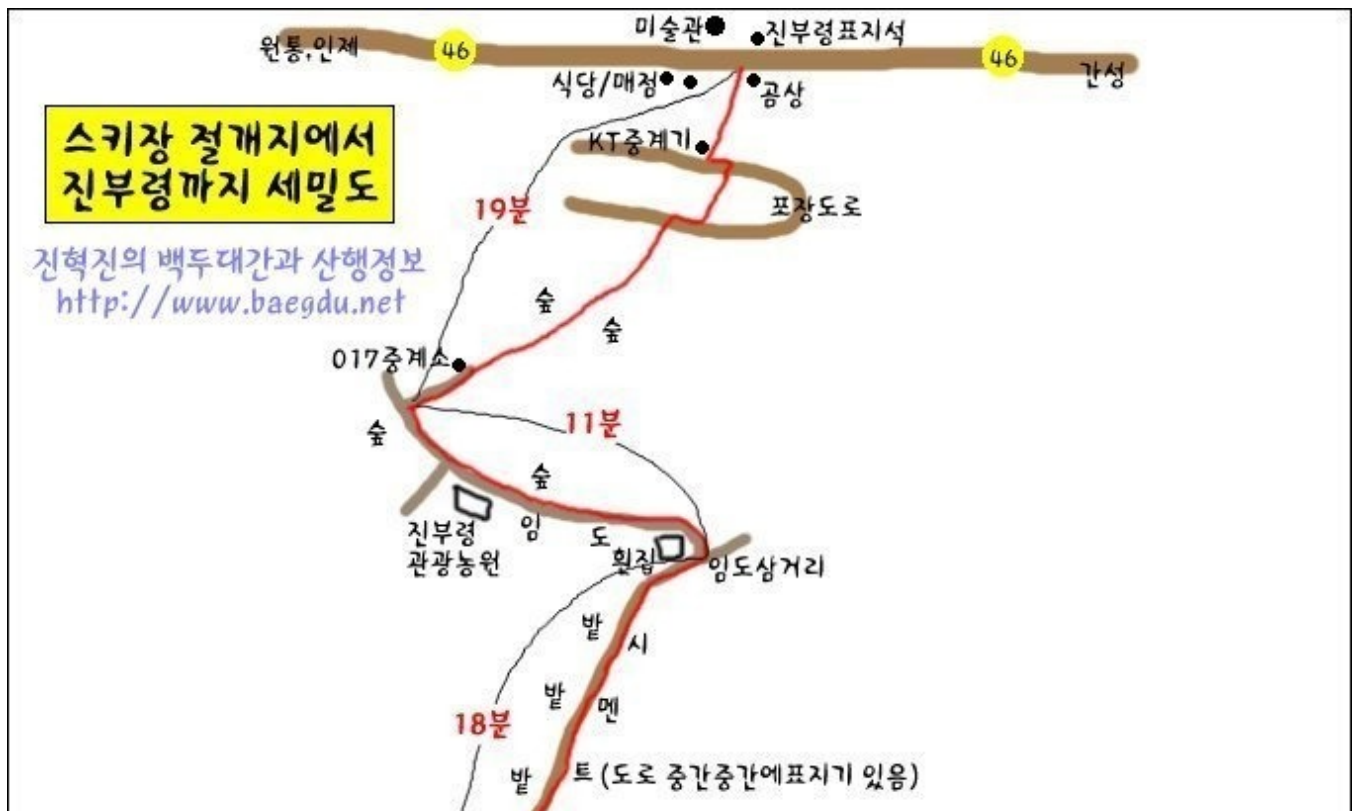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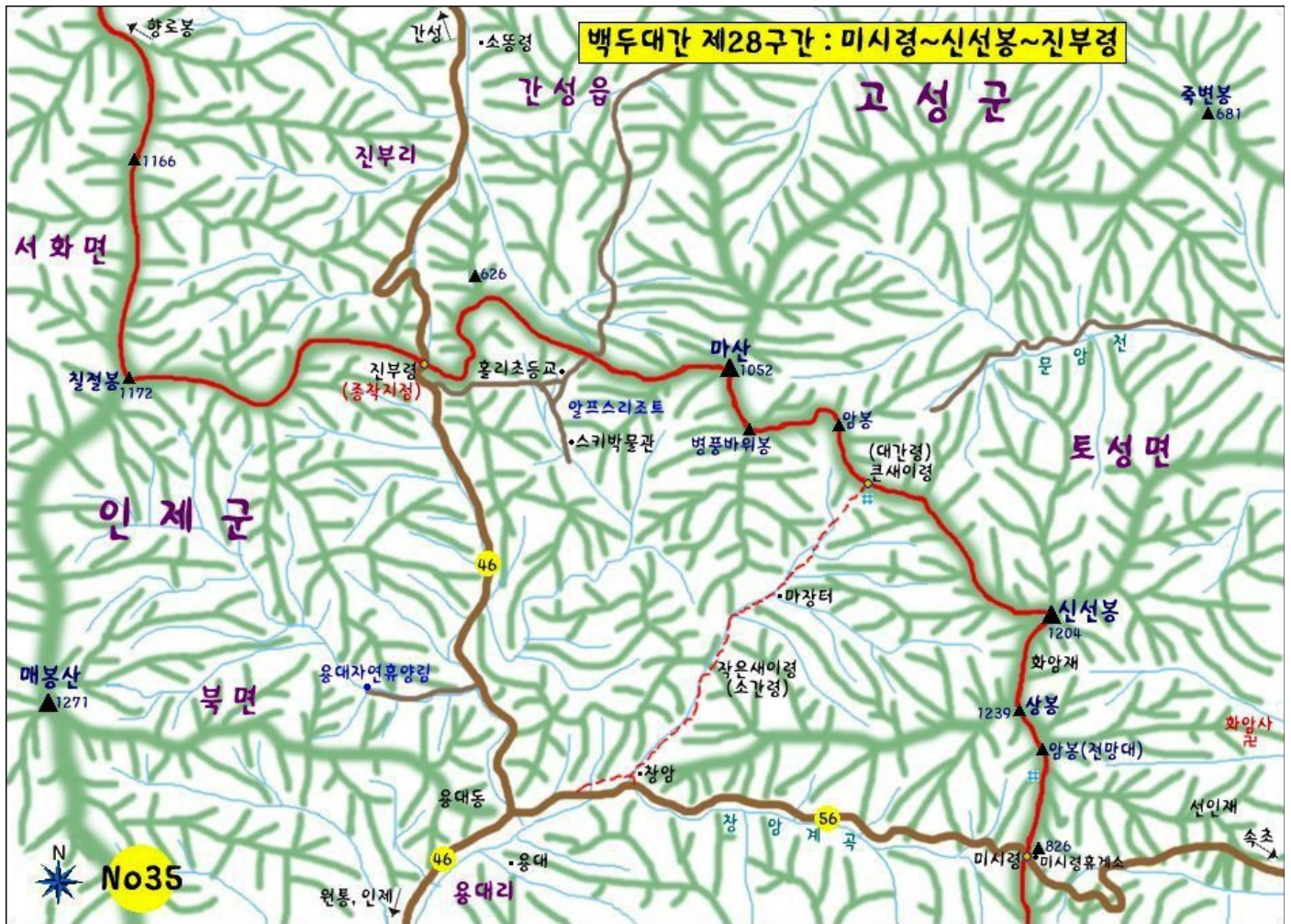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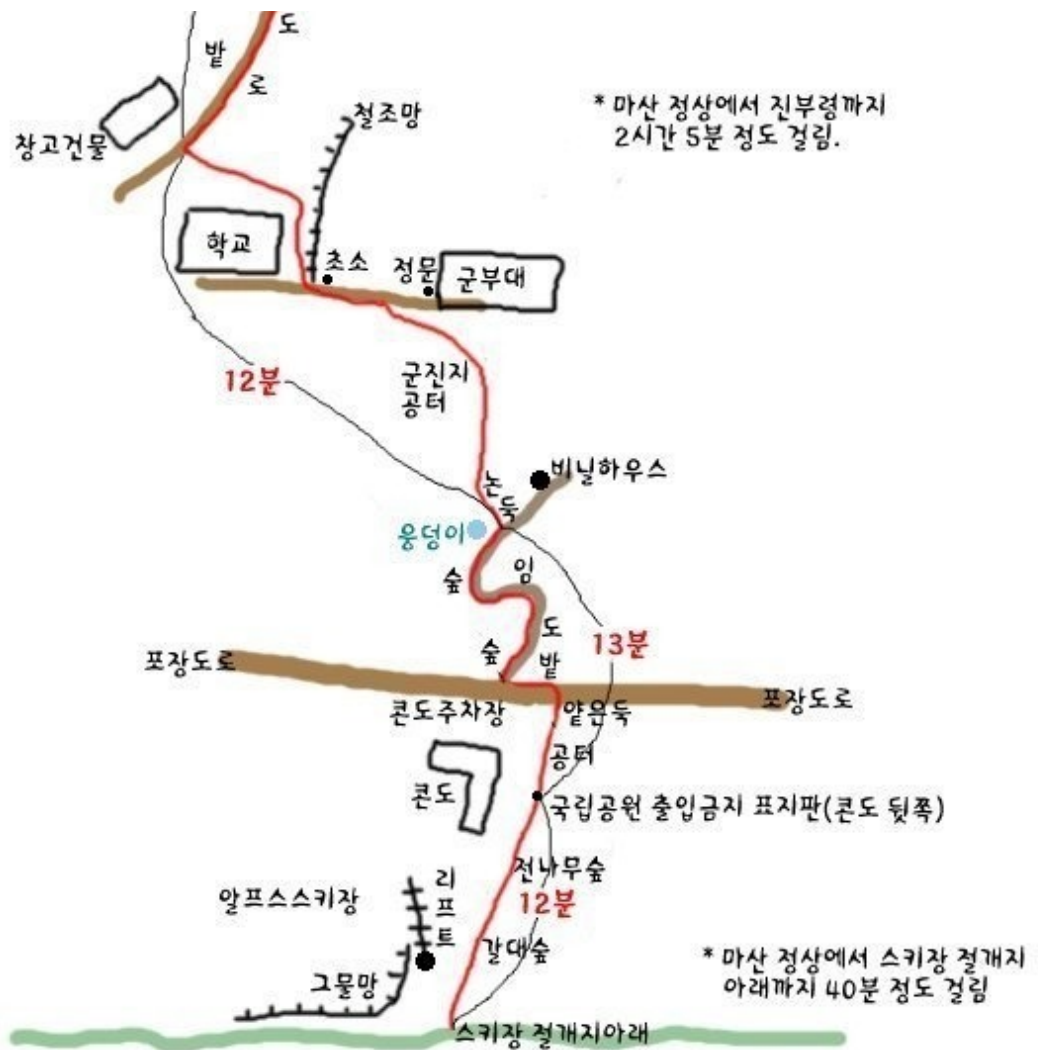












渴波濫의 대간길 1

블로그 소중한시간 소중한님 그리고..... <http://blog.daum.net/gjehd>

저자 갈파람의별

발행일 2016.12.27 16:17:22

 블로그